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 강 혁
편집인 겸 이 장 희
편집장 강 인 숙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 영 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THE OE DAE HAGBO

제581호 1992년 5월 19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고(故) 윤상원 열사의 가족과 함께한 광주민중항쟁 12주기

조국의 이름으로 곡하며 나 들풀로 일어서리라

5월 광주가 12주기를 맞아 오늘 되살아오고 있다.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피흘리며 쓰러져 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넋이 지금 민자당 장기집권반대와 민주정부수립이라는 큰 함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보에서는 5·18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80년 5월광주민중항쟁의 조직적 지도자였으며 계엄군에 맞서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31살의 꽃다운 청춘을 조국에 바친 윤상원 열사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족들을 밀착취재하여 그 내용을 실었다.

유족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5·18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고, 오늘에 있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12년전, 맏아들 상원이 도청에서의 마지막 항전을 시작 하기 전까지 자주 드나들었을…

오늘이 니 제삿날이구나

광주직할시 광산구 신룡동 570-1。

올해 환갑을 맞는 부인 이인숙(61)씨, 막내딸 승희(25)와 함께 윤석동(66)씨의 비뽄 나날이 이어지는 곳이다. 87년까지만 해도 광산군이었던 곳으로 광주 외곽에 자리한 농촌마을이다.

요즘은 다른 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윤씨의 하루는 시작된다. 18일이 가까와 오면서 준비해야 할 일도 많고 4월부터 시작한 집짓는 일도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기에 마음이 조급해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오늘은 기독교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18일의 묘제 준비도 이제 서둘러야 한다.

"승희야, 큰 오빠 사진 꺼내서 닦아 놓그라."

아침밥을 먹고 약치러 논에 나가면서 윤씨가 막내딸에게 건네는 말이다. 평소엔 책장 안 깊숙한 곳에 넣어두지만 제삿날엔 종일 사진을 안방에 꺼내 놓는다. 오늘이 바로 음력 4월13일。 맏아들 상원의 제삿날인 것이다.

"오늘은 당신도 조까 더 바쁘겠소." 짐짓은 일꾼들 밥해 주느라 아픈 몸을 이끌고 고생하는 부인에게도 오늘은 미안한 마음을 한마디 건넸다.

논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서둘러 점심식사를 하고 옷을 갈아 입은 후 집을 나섰다. 기독교방송국 인터뷰 약속때문이다. YWCA회관 7층에 기독교방송국이 있다. 이 건물 6층에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 건물을 찾는다. 작년 6월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회장을 맡으면서는 이 곳을 찾는 횟수가 더 잦아졌다. 12년 전, 맏아들 상원이 도청에서의 마지막 항전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자주 드나들었을 바로 그곳이다.

기독교방송국에선 '5·18광주민중항쟁 12주기를 맞이하는 감회'와 '5·18묘역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두고 인터뷰를 했다. 18일 오전 10시에 방송될 것이라고 한다. 방송국에는 몇몇 전교조 교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계엄군들은 도청주위에서 수백명을 체포하고 달아나던 사람은 가차없이 사살했 다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통일국가가 되었을 때, 그때 망월묘역을 성역화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

"5·18광주민중항쟁은 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환점이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광주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하루빨리 독재정권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망월동 묘역을 성역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망월동 묘역을 성역화하겠다는데 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독재정부가 하는 일에는 그 무엇에도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망월동에 누어있는 5월 영령들도 결코 그것을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온 국민의 바램인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통일국가가 되었을 때, 그 때 망월동 묘역을 성역화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일만의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임무라 생각합니다"

이 날 윤씨가 인터뷰 질문에 대해 답변한 주요내용이다。 인터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치고 6층사무실에 들러 행사준비에 바쁜 회원들을 만나고, 유족회 회원들과 함께 묘제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예산이 부족하니 은행융자를 4백만원 내고, 음식준비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눈물의 세월을 넘어…

바쁘게 광주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윤씨는 문득 12년 전의 이 거리를 떠올려 본다。 그 날은 광주시내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상원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던 날이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계엄군인지 살인집단인지 알 수 없는 공수부대에 의해 수많은 학생들의 머리가 터져 선혈을 쏟아 내고 있었고, 군화발에 짓이긴 몸을 가누지 못해 신음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공수부대는 시위도중 붙잡힌 시민들에 대해 거리에서 옷을 발가벗기고 화염병 조각과 돌맹이가 흐트러져 있는 아스팔트에 알몸 그대로 포복을 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머리채를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는 외침이 질규처럼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저 시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저토록 가혹한 행위를 저들에게 하는가? 공수부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광견인가?' 당시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다시는 광주에서 밝은 햇살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의 광주는 그 아픔을 딛고 다시 굳건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도청으로 모여들어 5·18 12주기를 추모하면서, 광주시민들은 민중을 기만하며 정권을 유지하고자하는 민자당의 학정을 폭로하고 민주정부수립의 높은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윤씨 역시 잠시 그 대열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며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깨 위에 놓인 막중한 과제를 생각해 보았다。

광주민중항쟁 12주기를 맞아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대개혁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다

윤씨가 급하게 집으로 향한 시간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집에 도착하니 6시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18일 추모제때 할 인사말을 준비했다。 유족회 회장이 되고나서는 처음 맞는 기념식이라 다소 긴장이 되기도 한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펜을 들었다。

"우리 이제 슬퍼하고 있지만은 말시다。 5·18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자식들의 죽음으로써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실현하도록 합시다."

돋보기안경을 끼고 윤씨는 금방 써놓은 인사말을 소리내어 읽어 보았다。

8시가 좀 넘자 셋째 아들 태원(32)이 왔다。 울산에 사는 둘째 아들에게선 이미 못와서 미안하다는 전화가 온 뒤였다。

"아부지, 요즘 바쁘시겠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암지도 않다。 내 걱정은 말그라。 난 이렇게 살다 죽고 싶응께."

"무슨 말씀을요? 좋은 세상 보시고 돌아가셔야죠。"

"이제 곧 좋은 세상 온당께."

태원과 옷으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정겹기만 하다。

"신문 보니께 북한서 망월동 참배온다드니 정부허고 합의가 안돼서 못온다고 하드만?"

"그래요? 근데 참배하면 뭐허요?"

무심코 던진 태원의 말에 윤씨는 고개를 흔든다。

"안글제。 참배를 하러 온다는 건 5·18에 대해 진실되게 알려고 한다는 것인게, 북한에서도 와야지。 다 우리 민족인데 그 진실을 알아야되고말고."

태원과의 대화가 한참 무르익는 가운데 밖에선 젯상이 차려지고 있었다。

부인과 승희가 젯상을 차리는 동안 아들 태원이 옆에서 5월 말에 있을 이씨 회갑잔치 얘길 꺼낸다。

"어머니 여직껏 고생하셨는데 그 날 저희집에서 식구들 다 불러 놓고 밥이나 한끼 같이 하는게 좋겄어요。 여긴 너무 좁아서 안될 것 같응께요。"

"그냥 넘어가잔께。 무슨 회갑은 회갑이여?"

부인은 극구 반대를 한다。 아니 아예 회갑이란 말도 못꺼낼 정도로 버럭 화를 내고 나선다。

"엄마? 그래도 오빠 마음은 안그렇잖아요? 오빠 말대로 하세요." 막내딸이 한마디 거들어도 마찬가지다。

"회갑은 무슨 회갑이여。 큰아들도 없는디……。"

효려지는 말꼬리에 두 남매는 가슴이 아픈 모양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힘겹게 살아온 어머니의 60평생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 싶은 자식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럼 밥만 먹는거지?".

결국 두 남매가 이겼다。 어머니도 아들딸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젠 마냥 슬퍼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어머니도 깨달은 모양이다。

젯상이 단출하게 차려졌다。 밥, 국, 몇 가지 과일에 금방 부친 고기전, 도라지 나물무침。

태원과 승희가 제사를 지내는 동안 부인 이씨는 부엌으로 갔다。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군불을 땐다。 막 막 소리를 내며 타기 시작하는 장작불 사이로 상원이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외침이 사나운 총성과 함께 이씨의 귓가의 울려왔다。

계엄군은 인기척만 보이면 무조건 M16소총을 갈겨댔고 이때의 총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살되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죽음위에 새로운 역사의 꽃이 필 것이다。 살인군부는 피로써 최후를 맞을 것이며, 그들의 조종자 미국…'

상원의 외침이 들려온다

새벽 3시가 넘어 도청을 완전포위한 계엄군의, 귀청을 찢는듯한 자동소총의 연발음이 도청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도청 앞뜰에 흩어져 있던 시민군들은 방향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허공을 가르는 총소리에 흔비백산하여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다。

아직은 어두운 미명, 진압군의 모습이 확연한 것은 아니었고 시민군들은 그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둠 저쪽을 향해 단발 사격을 하다가는 방향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곳에서 날아든 M16 자동소총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에 하나둘씩 피투성이가 되어 고꾸라졌다。

무장항쟁 기간동안 항쟁지도부의 대변인직을 맡았던 31살의 청년 윤상원도 그 시간 카빈소총을 손에 들고 도청민원실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노동청 방향에서 오는 진압군을 저지하기 위해 창틀에 총구를 내놓고 웅크려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3공수 11대대 특공조장의 편중식 대위가 지휘하는 정예특공대원 80여명이 무차별 피로써 최후를 맞을 것이며,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헛된 기대를 걸었던 미국……。 실은 살인군부의 조종자 미국……。 그 놈들을 향해 이 땅의 민중들이 총부리를 겨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참하게 죽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승리하여 이 핏값을 꼭 영광스럽게 되돌려 받고 말 것이다。' 그러나 두서없는 회한은 잠깐동안, 무장시민군 윤상원을 다시 인간 윤상원으로 돌아오게 한다。 부모님의 모습이 맴돈게 상원의 망막 저 켠으로 현시처럼 가득 떠오른다。

'불쌍한 나의 부모님。 나를 기르고 가르치기 위해 척박한 농촌에서 죽도록 고생만 해오신 부모님, 호강 한번 못시켜 드리고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불효잡니다。'('윤상원 평전'중에서)

아들생각에 잠긴 듯 부인 이씨의 눈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고 어느새 군불은 활활 타들어가고 있었다。

제사지내는 것을 뒤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던 윤씨는 끝날 즈음에 잊지않고 그날의 일기를 적기 시작했다。

'상원아, 열 두번째 지내는 니 제사구나。 내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죽는 날까지 너의 외침을 잊지 않으마。 내 아들 상원이와 죄없는 광주의 무수한 시민들을 빼앗아 간 독재정권과 아직도 그 독재정권을 조종하는 미국을 내몰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 이 애비가 환한 웃음으로 네 곁으로 가마。 사랑하는 내 아들 상원아。'

〈황효순 기자〉

사 설

대립과 충돌보다는 사랑과 지혜를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수행하자면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연구분위기의 조성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대학에서는 일면 토론과 논쟁이 있어서는 안되고 대학구성집단간의 대립과 충돌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 수업과 같은 지적활동은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하에서 이루워져야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6·29민주화선언 이후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분규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해결되는 양상을 띠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학은 대학발전에 전념해야 하는 힘을 소진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60년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제일주의 그리고 안보유지라는 명분아래 자율적인 민주화추진이 부당하게 억압되어 왔다. 특히 대학에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서운 감시와 강한 억압이 가해졌었다. 그 강한 억압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대학의 민주화운동이 매우 조급하고 강렬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간에 대학에서 발생했던 학원민주화를 위한 구성원간의 강도 높은 대립과 충돌은 있을 수 있는 일 일뿐 아니라 대학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로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모든 문제가 단결된 힘이나 권위로만 해결되어 진다면 대학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의 대학은 선진국의 대학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뒤 떨어져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제 대학의 구성원들은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과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결집시켜야 할 때이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사회나 제도를 개조하는 일이 단시일 안에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이란 언제나 미래를 위한 목표로서 남게 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이상적이고 민주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은 자기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자세를 정립하는데서 부터 출발한다. 자기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 정립에 기반이 되는 것은 일에 대한 사회성의 투철한 인식이다. 대학구성원들이 하는 일의 사회성을 정확하게 인식한다함은 대학의 기능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대학의 구성원은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자기영역의 일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가 조화롭고 강한 유대감이 유지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학구성원들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은 상호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해서 풀어지고 해결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과 교직원이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개선안을 시대정신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은 아무리 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도 한발씩 양보하면서 단계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간다는 지혜를 발휘할 때 이다.

대학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름길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인내와 지혜를 갖고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가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성조기와 공화국기 중 하나를 택하라면…

인민공화국 깃발을 왜 두려워 하는가?

통일의 깃자루를 쥔자는 누구인가, 국민인가, 정권인가.

과민반응도 너무 과민반응이다.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를 의도한 정권도 더욱 그러하다.

이젠 생각이 과감히 전환되어야 함을 삐저리게 느낀다.

통일을 바란다면 이승만하던 옛 생각 그대로 박정희, 전두환 하던 짓 그대로 해서는 안된다. 과연 북한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란 말인가.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보자.

미국과 북한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느편을 응원할 것인가.

작년에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북한을 응원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논리라면 이 말에 답한 자들을 모두 「이적단체 고무·찬양협의」로 전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감옥에 쳐 넣어서 씨를 말려야 하는가?

북한을 응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사람이 중요하지 깃발이 무어 그리 대수란 말인가.

공화국기를 내건 이유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들에게 북한의 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고 물어보았다.

거의 대부분 모른다고 한다. 별이 있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자세히 본적도 없거니와 여태껏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한다.

미국의 군화발에 허리가 짤린 아픈 현실을 47년간 부둥켜안고 반쪽 민족이 그리워 울부짖으면서도 우리는 민족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민족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잘 알고 있다.

아니 아는 단계를 넘어 미국의 원하는 바대로 제국주의 문화권에 세뇌되어 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상식으로 미국 국기인 성조기에는 줄이 몇줄이고 별이 몇개인지까지 알 것이다.

이런 무슨 창피한 일인가?

하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도대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말인가?

개인끼리도 친해지려면 서로 취미가 뭐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수천만이 하나되는 겨레의 통일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혈오감이 있다면 정부에서 앞장서서 전국민들에게 심어져 있는 생각을 없애야 하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의감에 불타는 애국청년이 이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라고 청년들에게 강려해야 할 기성세대들이 '공화국기'라는 극히 단순한 감정때문에 현재와 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통일을 바라는 젊은이의 입장에서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

또한 공화국기 사건과 관련하여 16일 대학 총장 모임에서 있었던, 이를 빌미 삼아 단호히 처벌하라는 식의 정권비호의 목소리는 없어져야 한다. 진정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대학이라면 대학의 우두머리로서 총장들이 학생들을 외법조처하라고 표명하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서로 알아야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공화국기 뿐만 아니라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청년 학도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한사람씩 한사람씩 북한을 바로 알아나간다면 또한 바로 그것이 통일을 이끌어내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중들의 통일욕구가 고양되고 있는데, 정부는 더이상 국가보안법을 믿고 날뛰는 꼴을 멈추고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이원영 서양·독어4〉

흡산의 소리

세상은 넓고 할일도 많다지만 지금의 우리네 사는 세상을 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혼자서 끙끙 묶어 두었던 답답한 가슴을 여기에 풀어 놓읍시다. 흡산의 소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대화 광장입니다.

2백자 원고지 2~7매의 글로 아니면 독자만평과 독자사진으로 '흡산의 소리' 대화광장에 참여하십시오. 매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로 원고를 가지고 오시면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할 말이 있을때는 절대로 가만히 앉아 참고만 있지 맙시다.

대학생활과 부직활동

부직(副職)이라면 우리학생들에겐 아르바이트(Arbeit)라는 어휘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을 한다"는 즉, 노동의 의미가 많이 부각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이후 과외금지 조치이후 우리 대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궁핍을 초래했던 과거가 있어 부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대행스업계도 경향신문사가 주관이되어 "경향신문사 대학생 아르바이트은행"이라는 조직체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대학생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전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더가 요사이 몇년동안은 과외허용조치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개인지도 과외가 쉽게 알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대학교에서도 근 10년동안 연례적인 사업으로 각 학기초 1개월동안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현황을 경향아르바이트은행에 통보하고, 자체 관리대장을 유지하여 계속적으로 추천의뢰되는 일자리에 맞는 학생들을 찾아서 연락도 취하고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도 하면서 부직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학이 되면 이미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다음 해당의뢰처에 사전 추천하여 확정시킨후 근무케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고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가서야 일자리를 찾을 경우는 이미 선발이 끝나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직의 종류에는 천태만상이겠으나 방학기간중에는 경향아르바이트은행을 통해서 주로 공식적으로 대학생들에게 권장되고 있는 일자리는 약 100여종이 된다. 그중에서도 각 동사무소 사무보조, 방범및 거리질서, 각 금융기반 사무보조, 각종 기업체 사무보조직등이 남녀구분없이 다수 활용되고 있으며, 학기중에는 특히 우리 외대생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이면서 기업체에서도 호응이 좋은 직종은 어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통역및 번역직이라고 보고 이 직종에 대해서는 거교최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가정, 특히 핵가족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열은 더욱 증대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곧, 개인지도 과외의 증가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지구가족화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각종 언어의 필요성은 말할것도 없이 증대된다고 본다. 따라서 언어와 관련된 일자리는 증대되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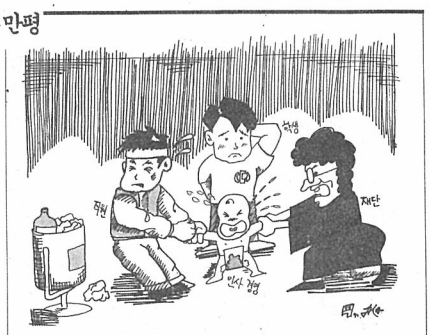
끝으로 앞한 대학생활과 경제적, 사회적 체험과 자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신적으로 철저한 자립정신과 산 지식을 사회현장에서 얻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은 항상 학생회관 1층에 있는 "아르바이트 게시판"을 예의 관찰하여 본인과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한번 결정된 일자리는 신명을 다 바쳐 일하면서 그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이 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학교의 일자리를 계속 증대시켜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모이를 주어 먹는다"라는 속담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강영은 학생처 취업보도주임〉

독자만평

버틸 걸 버텨야지

〈황용하 상경·무역2〉



솔로몬의 지혜

〈이상덕 사범·한교2〉

총액임금제 분쇄하고 무노동무임금 박살내고 처우개선 확실히하여 장모님께 아부하자

총장님 4·19때 법대 학생회장 하시던 경의는 어디로 갔소. 이기붕 ○○○ 성토했던 당신아니오. —그때 그사람—

빗물은 노조의 뜨거운 눈물.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대학노동자 웃겼는다.
—대학노련집회에서—

단결 / 투쟁 / 우리가 있다(힘내, 힘내) —차들—

빨간 조끼의 사나이들 자랑차다. —가이내—

총장은 아무런 권한도 손에 쥐어주지 않고 단체교섭장에 떠밀리는 부총장이 애처롭지 않나요. —원—

백지 대자보

주제:직원노조 아저씨들의 5월은…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그러나 나는 죽어도 가리라. —호—

총무처장은 총무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달들이—

—어느 장부—

이사장 치마폭에 온 외대가 풍지박산 이로구나 —나—

지 활활 타오르는 전태일 열사여. 그대와 함께 외대의 넋이 되어 함께 지켜 나가자꾸
—외대혼—

외대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꿔야 할 오월입니다. —A92—

파업투쟁으로 힘찬 전진을 약속하는… —구공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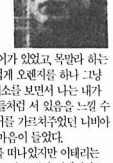
빨리 이기고 깨끗한 학교에서 살자 —바퀴벌레—

5월은 5월이되 어제의 5월이 아니로구나 —하루살이—

세계로 꿈을 펴는 젊음

이태리를 알았다는 자신감이
세계를 향한 자신감으로 커갈 날도 멀지만은 않습니다.

독신파견 지역전문가제도



아주 멀리 떠나있다는 것
내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생소한 외국어로 말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도 된다.
하지만 내가 이태리의 라나테공항에 내렸을 때는 불안 보다는 호기심과 기대가 내 가슴 속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은 1년 동안 마음껏 보고 느끼며 이태리를 배우기만 하면 되는 비교적 편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신파견 지역전문가제도로 이태리 파견이 결정되고 나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이태리어를 배우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태리어라는 생소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일이아니었을 뿐더러 이태리어는 나에게 마치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태리에 도착하자마자 그것은 느낌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나는 언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구멍가게에서 신문을 사며 나누는 말 한마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며 나누는 말 한마디가 바로 살아있는 소중한 이태리어였고 이태리 그 자체였던 것이었다. 지금도 생생한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 소렌토, 세르데냐아 등등 그 모든 아름다운 곳들이 바로 나의 이태리어 학교였던 것이다. 덕분에 나는 쉽게 이태리어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이태리어를 배우면서 어느정도 이태리에 익숙해졌을 무렵 시실리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
시실리는 이태리에서도 아주 시골에 속하는 곳이므로 시실리 사람들에게는 내가 매우 낯설어 보였을 테고 더우기 이태리어를 말하는 동양인은 신기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시실리가 이태리가 그렇게 멀거나 낯설어 보이지만은 않았다.
그곳과 사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나는 어느새 이태리 속으로 잠겨 들어가 있었고, 목말라 하는 나에게 나무도 자연스럽게 오렌지를 하나 그냥 건네주던 시실리인의 미소를 보면서 나는 내가 이태리의 한 가운데 그들처럼 서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 이태리어를 가르쳐주었던 니비아 선생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돌아와 이태리를 떠나있지만 이태리는 나에게 떠나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이태리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태리어를 안다는 것은 이태리인을 그리고 이태리를 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감이다.
그리고 나의 이태리에 대한 이 자신감은 머지않아 세계에 대한 더 큰 자신감으로 커갈 것이다.

삼성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키우고 기술의 국제화, 제품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시람의 국제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신파견지역 전문가제도 — 업무없이 자유롭게 현지경험과 지식만을 쌓아 지연스럽게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이 제도에는 매년 400명씩의 3년차 신입사원이 선발되어 독신파견되고 있으며 3년후에는 약 2,000명의 지역전문가가 양성됩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서울총학, 18일 공청회 개최

총학생회장사퇴와 관련해 이후 방안논의
언협, 설문조사 바탕으로 등투 평가등 질의

18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는 총학생회장사퇴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장욱(서양·노어4)군의 잠적에 이은 사퇴발표와 관련해 학내 많은 여론이 일고있다.

서울캠퍼스에는 현재 총학생회장 사퇴에 따른 온갖 추측이 나도는가 하면 여러 학회나 모임 등은 총학생회의 등록금 투쟁에 대한 오류와 학생회 내의 비민주성을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를 부착, 학내여론을 술렁이게 했다.

영어와 사회과학학회 'what' 반과 역사연구회 '여명'은 대자보를 통해 "제26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의 사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으며, 또한 기간의 무능력했던 사업을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된 토론과 공개적인 토론회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총학생회에서는 언론협의회주최로 18일(월) 공청회를 열것과 21일(목)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인준하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일반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5일(금) 도서관·강의실·학생회실 등 교내곳곳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방서시 편집부는 이러한 총학생회의 입장에 대해 "총학생회장 사퇴는 정식 사퇴 절차가 아닌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한 뒤 "공청회 이전에 총학행회장 사퇴절차를 먼저 정식으로 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청회에 담보해야할 내용으로 △모든 학생들의 전면참여 보장 △등투·총학생회장 사퇴·총학생회의 비민주적 관행에 대한 명확한 구분 평가 △이후 부총학생회장의 권한대행문제에 대해 토론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언론협의회는 18일(월) '7천학우와 학생회의 하나됨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확정하고 18일 오후4시 설문조사 발표와 함께 △3·4월 학생회 평가 △총학생회장 사퇴에 따른 대안 제시 △이후 학생회에서 사업방향 등을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문제제기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기초해 볼 때 이번 총학생회장의 사퇴문제는 조기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간 논쟁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학생회가 정세의 긴박감과 계급관계가 치열해지는 현정세의 제반상황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학생회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도 각 모임, 학생회, 일반학생 모두가 조기수습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총학생회장 사퇴에 대한 총학생회의 납득할만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거듭나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 및 사람의 결의차원이 아닌 학생들의 총분한 여론수렴과 의사개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학생회의 제반 결정은 항시적인 학생들의 대중적 평가위에서 실현되고 폐기될 수 있어야 하며, 학생회는 대안의 설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평가를 조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 이번 사태는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노재봉 기자〉

〈알림〉
이번주 581호 '외통수'는 화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게재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인, 교통문제 해결위해 관광버스운행

운영경비·대학당국의 외면으로 난항예상

용인캠퍼스 교통난 해결을 위한 시노선 확보와 이에 따른 차량증차 부분이 기존업주(대원여객)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15일(금)부터 잠실에서 출발하는 관광버스로 대체운행되고 있다.

당초 대원여객측은 5월 초까지 신노선을 확보하고, 현재 운행중인 동서울터미널부터 용인캠퍼스 간의 12대 차량이외에 10대의 좌석버스를 증차, 통학시간에 집중 배차할 예정이었다.

이번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노선 확충에 대해 그동안 준비를 해온 대원여객측에서는 "신노선 확충과 관련하여 정부 행정부서에 허가신청원을 제출했으나 승인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 6월경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7일(목) 이강혁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의 시행 이전까지 관광버스를 운행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이강혁 총장은 "기존업주를 상대로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을 시에는 다른 업주를 선택하도록 하며, 기존업주에게는 양해를 구하도록 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주)대원관광과 (주)코오롱관광을 상대로 운행비 및 운행차량수를 논의한 대학당국과 학생측 대표는 이 중 (주)코오롱관광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14일(목) 대학당국과 업주간의 운행계약서 작성이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대학당국은 갑자기 '계약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해 학생측 단독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번과 같은 대학당국의 태도변화에는 (주)대원여객 등 기존업주측이 자신들의 입지와 관련하여, 타회사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압력행사가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총학생회측은 현재 관광버스 10대를 평일과 주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교통난 해소에 일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관광버스 한대당 하루에 2회 운영시 약 18만원의 운행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태도변화 없이는 앞으로 총학생회 자생적인 경비지급에 있어 상당한 자금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주)대원여객의 신노선 운행계획과 관련, 기존에 학내를 운행하던 경기교통, 경기여객, 경남여객 등이 자신들의 수입과 직결된 이번 계획에 대해 상당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원여객측 운수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노선 확보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노조, 대 재단투쟁으로 방향 전환

8일 재단항의 방문등 성실한 교섭태도 요구

직원노조는 지난 16일(금) 대학당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본교 직원노동조합(직원노조, 조합장 장건·출판부임)의 전면파업이 19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직원노조가 지금까지 단체교섭에서 대학당국을 주요 부쟁목표로 하던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인사·경영권을 갖고 있는 본교 재단을 상대로한 본격적인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현재까지 대학당국은 지난 4일(월)까지의 10차 단체교섭과정에서 '90년도 단체협약'까지 부정하면서 시종일관 직원노조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이번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사안인 '직원의 인사·경영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92년 4월3일(금)부터 본교 정관이 바뀌었고, 개정정관에 의하면 직원의 인사·정계부문의 최종권한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재단의 의사변화 없이는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없음을 간접 표명했다.

이에 대해 직원노조측은 문제(특히 인사·경영참여)의 직접적 해결 열쇠는 재단에 있다는 판단아래 8일(금)로 제안한 제11차 단체교섭에 재단측 박승준 전무이사의 참석을 요구했으며, 당일 재단측 대표자의 불참으로 협상이 결렬되자 이의 항의표시로 재단항의 방문을 실시, 재단측의 성실한 태도표명을 요구했다.

이날 직원노조의 항의방문에 대해 박승준 전무이사는 "교섭권을 대학당국에 위임하였으니 재단과 직원노조가 교섭할 이유가 없다"며 직원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러한 재단측 입장표명에 따라 직원노조는 "그렇다면 이사장 위임장을 대학당국의 교섭위원에게 정식으로 보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박승준 전무이사가 "인사권에 관한 부분은 위임할 수 없다"고 재단의 권한만 강화되고 대학의 3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성은 무시되고 있다"면서 "직원노조는 학원자주화와 직원 권익신장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직원노조측 조합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은 13일(수) 총장실을 항의방문, 교수들도 개악된 사립학교법의 철폐에 동참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대학당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에 앞서 재단이사장으로 부터의 교섭권 위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협, 파업관련 성명 발표

노조·당국, 조기수습 촉구

본교 직원노조의 전면파업과 관련 교수협의회(회장 우덕룡, 서반어어과 교수)는 지난 13일(수) '현 학내사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직원노조·대학당국의 조속한 사태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일동은 "교육과 연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학이, 극단적인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과연 이것이 대학인으로서의 행동이며 대학의 모습인지 실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밝힌 이후 "일방적인 주장과 감정을 있는대로 털어 놓기에 앞서 대학이라고 하는 각별한 교육의 장이 갖는 비중과 기대를 고려한다면 좀더 냉정한 이성으로 되돌아가 대화와 타협에 의한 사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현재의 모습을 지적했다.

빈의자

5월 투사의 망향가

▲금남로와 중앙로, 충장로·광주의 어느 거리 하나도 12년전 자유 갈구의 눈물이 묻어나지 않는 것이 없고 아스팔트에 귀를 대면 그때의 발자욱 소리가 들릴것만 같아 아무만지듯 시내 곳곳을 바라본다. 망월동 묘역 입구에 내리자 눈에 들어온 것은 그놈도 없는 길 옆의 서명행렬이다.

"윤한봉 선생을 광주시민의 품으로" 광주민주항쟁 주모자로 몰려 현재까지도 미국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광주최후의 수배자, 윤한봉씨의 안전귀국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이다.

▲77년 부활절 사건, 79년 전남대 시위 예비음모사건 등에 연루돼 유신독재 기간에 세차례나 투옥됐던 윤씨는 10·26이후 민주청년협의회 전남지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5·18을 맞았다. 민주화 열망에 된서리를 내린 계엄령 확대조치와 곧이어 밀어닥친 검거선풍을 피해 윤씨는 1981년 4월29일 외항선 잠판 밑에 숨어 망명길에 올랐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로스앤젤레스에 '민족학교'를 세워 동포2세들에게 국어·국사·탈춤·민요·태권도 등을 가르쳐 민족의식을 심는 문화운동에 주력하고 '제미한국청년연합'을 결성, 국외에서나마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힘쓴고 있으며 다시 광주로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시민권을 거부하고 한국인으로 남아 있다.

▲누구보다도 민주화의 열망이 높은 윤한봉씨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명운동 시작 10일만에 3만명을 넘긴 광주시민의 한목소리는 왜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라는 대답을 얻고 있는가.

그날의 피비린내와 충성이 누구의 책임이며 우리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남김없이 보여준 광주이기에, 윤씨는 바로 민주화 항쟁의 뜨거운 전사 그 장본인이기에 누구도 이 들을 생이별시킬 수는 없다. 하물며 이제 수명도 얼마남지 않은 기만적 작태의 정부가 어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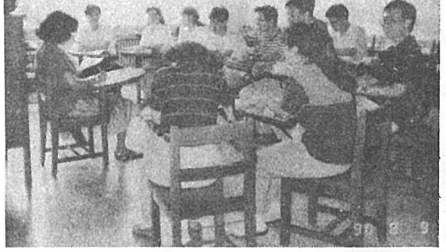
▲광주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고자 망월동 묘역을 들아보는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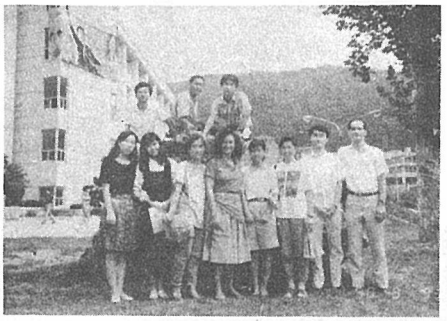
단지 5·18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관광지 찾듯 가볍게 이루어서는 안될 말이다.

전류에 감전이라도 되는듯 그렇게 신경줄을 팽팽히하고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의 민주화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망월동 넋들에 질 올리고 싶은 소원도 못 이루고 멍든 가슴 달래는 윤씨의 한을 12년 그 긴 세월 동안에도 미처 치유하지 못한 우리는 투쟁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충미〉





한국외국어대학교

제4회 하계 어학 연수

(The 4th Summer Language School)

연수참가자격:전국대학(원)생
모집인원:선착순 200명 내외
원서접수기간:1992. 5. 12~6. 12
원서교부 및 접수처: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어문관 202호 대·생·협 사무실
-타교생은 전화(0335-30-4153)나 우편으로 문의요청 바랍니다.

제4회 하계어학 연수의 특징
1. 강사진은 국내최고의 시사영어 전문가들입니다.
2. 오후 특강개설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습니다.
3. 대·생·협이 펼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애국외대 통일왕산 더불어 함께사는 대학생활 협동조합

다극화되는 세계정세 속의 한반도 신질서 재편 Ⅲ

백승일
〈본교 대학원 경제학과 4학기〉

동북아 경제통합

미국과 일본자본의 세력관계에 따라 형성

미, 남한·대만등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강요

남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특화될 가능성

세계경제의 통합화와 지역주의화

오늘날 세계경제는 자본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운동은 자본의 축적요구—가치증식과 가치실현—에 기반하고 있기때문에 세계시장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초국가적 통합은 무역, 금융, 생산측면에서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자자본의 분배와 생산지역 결정의 주요 매카니즘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역주의와 경제적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즉 개별국가(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와 지역적 동맹(EC, NAFTA 등)이 무역시장, 경제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과 비공식적 구조조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들 사이, 국가와 기업사이, 기업들의 동맹 그리고 국내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업부문 등이 국제정치경제에서 역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발전경향은 국가가 정치 경제적인 목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의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안정한 세계경제 내에서 국가와 기업이 자신의 지위를 향상·유지시키려 하면서, 동시에 더욱 확대된 세계경제의 이익을 획득하려는 모순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면

동북아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소련권등과 시베리아의 자연자원, 일본·한국의자본과 기술, 중국·북한의 노동력, 공업기술 및 자연자원—를 갖고 있으며 문화적 배경등 동질성이 강하여 경제통합이 용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이 이 지역국가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첫째, 경제통합의 가장 큰 이점은 지역내 국가들에게 시장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단위당 생산비는 절감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만큼 분업과 전문화의 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서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온다.

둘째,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온다. 무역창출효과는 지역내 관세를 인하하거나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지역내에서 가장 유리한 생산조건을 가진 국가가 생산을 전담하여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를 부과시키고 지역내에서는 관세를 없앰으로써 무역전환효과가 생긴다. 즉 과거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지역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셋째, 경제통합은 회원국간에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며 동종산업간 경쟁을 심화시켜서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쟁력을 높인다. 관세동맹으로 지역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동일 산업내에서 경쟁자들의 수가 늘어난다. 역내 경쟁자의 수가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 관세동맹 이전의 각국내에서 독점하던 기업들의 독점력은 일시적으로 감소된다.

네째, 경제통합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성에 입각한 기업의 대규모화는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생산성증대와 경제발전을 가속시킨다. 그리고 관세동맹의 형성은 무역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회원국간의 무역증대에 기여한다.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에 따른 부정적인 면

그러나 이러한 밝은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우려의 소리도 높다. 그것은 먼저,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의 주도도가 미국과 일본자본의 세력관계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기존의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통상압력을 가중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한국·대만 등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중국적으로 이 지역에서 수평분업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즉 일본이 첨단기술산업을 지배하고 한국과 대만은 기술집약산업, 중국은 노동집약산업을 각각 특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산업구조조정을 완성하여 동북아 경제권을 일본경제의 하부구조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북아 경제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는 역시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이지역을 무역으로 정령하였던 국가이다. 또한 일본은 현재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국가들은 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자원과 합쳐져야 한다. 한반도내에서 어느 정도 완결된 경제구조를 이루었을 때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은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한국의 산업이 역내에서 구조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기술수준이 일본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65—79%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해외기술의존도는 89년 현재 26.5%로서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1.6%, 6.1%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 특히 일본(기술도입건수의 51.3%), 미국(26.1%)에 대한 기술의존이 심하다.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일본경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 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기술, 자본재 등을 주로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 경제권이 통합되면 이러한 한·일간의 경제상태는 구조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상품은 일본이 담당하고 잉여가 적은 산업은 한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에 대한 남·북의 선택

그러면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은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흐름이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의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한의 축적된 기술·자본

노동운동, 그 힘찬 전진을 위하여

마지막 '92년 민주노조운동의 도약기

일상적 공동투쟁 형성할 노동조합의 전국조직 건설

임투 3대과제, 총액임금·고용불안정·노동악법 철폐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남한 사회의 변혁적 대중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며 90년 전노협의 건설로 민주노조 운동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운동의 발전은 3저 호황이 막을 내리는 89년 이후 서서히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자본과 정권의 보다 고도화된 노동통제 방식과 맞물리면서 좀체로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기 불황은 국내 경제에 산업합리화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진영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르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통제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작년 11월 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이른바 '5대 더하기 운동'(또는 일 더하기 운동)과 국내경제의 침체를 이유로 한 각 사업장의 휴폐업, 대량 해고, 감원 등이 그 구체적 징후이다. 그러고 올 임투에서 최대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총액임금제 역시 변화된 노동통제 방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변화하는 경제정책 및 노동통제 방식은 국내외의 주객관적 정세로 인한 정권의 자구책 의에도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는 노동운동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지배세력의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즉 87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해 더 이상 물리적 탄압만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게 되자 경제불황의 원인을 노동자의 과다한 임금인상과 '게으른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소위 '노동자 책임전가론'으로 이념적 탄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년에 신종 노동운동 탄압이라고 불린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올해 대두되는 총액임금제는 이러한 노동운동 탄압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겠다는 의도로써 주시하다시피 그 본질은 한자리수 임금인상과 노동조합의 무력화라는 것이 최근의 여론 공방을 통한 전노협과 정부의 정책 대결에서 밝혀진바 있다.

이렇듯 변화된 정세를 배경으로 시작된 올 임투는 3·24 총선 이후 정부와 노동자의 총액임금제를 둘러싼 한판 승부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노동운동진영의 공동투쟁전선의 형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시기 임투가 일정 부분 대기업노조의 투쟁에 사활을 걸었다면 올 임투는 총액임금제라는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공동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올 임투에서는 3대 대중투쟁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총액임금제 분쇄외에도 고용불안정 해결, 노동법 개정등이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총액임금제와 산업합리화로 대변되는 정권과 자본의 고도화된 이데올로기 공세와 착취 기반을 강화하는 노동악법의 분쇄없이는 이후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세가지는 필연적으로 통일적인 투쟁방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투의 3대 과제의 방향성이 나온다 해도 그것의 구체적인 투쟁 방법이 없이는 지극히 '당위적 목표'로만 그칠 우려가 높다. 작년 대기업 연대회의가 정권과 자본의 공권력에 무너졌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층 간부들 사이에서는 투쟁의 연대와 그 연대조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것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물리적, 이념적 탄압을 물리칠 수 있는 전노동자들의 계급적 인식에 바탕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위축되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노동운동이 명실공히 변혁적 대중운동으로 심화되기 위해서는 몇몇 선진 노동자들만이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노동자들에게 사회 모순에 대한 보다 구조적 인식을 강화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 대중들의 구조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대중조직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적 대중조직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지도체로서 간부들을 의식화, 조직화시키고 노동운동의 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노동조합보다 한단계 더높은 조직을 뜻한다. 그것은 올 임투의 3대 과제가 단순히 총액 5% 저지가 관건이 아니라 그러한 임금억제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권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민주노조 운동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기업별, 업종별,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노동조합 조직들을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으로 통일시켜내는 것 역시 임투시기의 한시적 공동대응이 아닌 전국조직의 건설로 일상적 공동투쟁 전선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올 노동운동의 조직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노동운동은 지난 90년 이후 변화해온 정권과 자본의 노동통제 방식의 강화를 전노동자들의 총단결로 '쇄기를 박는 것'과 함께 아직도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일대도약의 시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현숙 기자〉

"암(癌)정복을 꿈꾸는 신약개발연구원"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우게 하는일 — 선경이 하고 있습니다.
선경은 국내 최초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경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배울 수 있는 더욱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암정복의 일보를 내딛으며…

여보세요. 생명과학 연구개발실이지요? 이번에 개발된 제 3세대 항암제는 언제쯤 시판이 가능합니까?
미국에서 개발된 기존의 항암제보다 우수한 제 3세대 항암제를 우리 힘으로 개발, 암정복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소식이 전해진후 우리 연구실에서 전화기가 가장 바빠졌을만큼 세계적 연구성과에 대한 관심은 컸다.
세계 35개국에 특허출원, 빠른 시간내에 세계시장에 내놓게될 항암제 개발의 뒤에는 팀원 모두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다.
연구결과의 진척이 없을때 느끼던 좌절감… 그때마다, "신약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던 선배들의 독려와 함께 신입사원 시절의 해외전지훈련의 기억은 뭇내기 연구원인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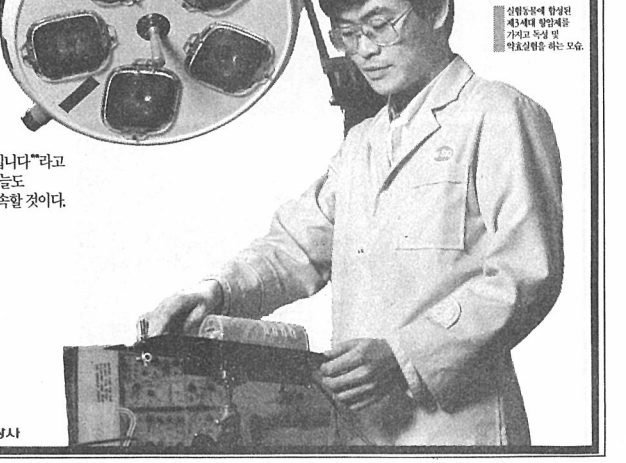
이제 나의 목표는 AIDS정복

2년 전, 햇병아리 신입사원으로 참가했던 일본에서의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 '89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데이진 공장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일본의약계를 돌아보며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 신약을 만들고야 말겠다던 풋내기 의약개발연구원의 다짐들… 일본 구석구석을 몸으로 부딪치며 체득한 패기의 참뜻… 이 모든 체험들은 세계적인 큰일을 해내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일깨울수 있었던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이제 항암제의 상품화에 이어 20세기의 흑사병 AIDS를 정복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보람이다.
AIDS정복의 소식을 전하며 "암이나 AIDS가 불치병이란 말도 이젠 옛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나의 하루는 힘찬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선경 인더스트리
생명과학연구소 항암제팀
김 강 혁



실험동물에 합성된 제3세대 항암제를 가지고 독성 및 약효실험을 하는 모습.

SUNKYONG
鮮京그룹

(주)선경·선경인더스트리·(주)SKC·쉐라톤워커힐·선경건설·(주)유공·유공해운·(주)유공가스·유공아코화학·(주)용국상사

한국군의 비민주성의 보고와 이의 변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반핵 평화운동 연합' 주최의 발표회를 정리해 본다.

민주 군대 건설을 위한 제언

사병들의 열악한 인권현실과 병역문제는 청년학생 모두의 문제로 공동화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한군부는 3대에 걸쳐서 그자신이 직접 정치권력의 담당자로서 지배의 전면에 군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왔다. 계엄령·위수령·긴급조치등으로 일상화 된 군의 정치개입은 광주민중항쟁의 무력진압을 비롯하여 최근 노동쟁의 현장에 군병력 동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군부정권의 폭력통치는 사회전체를 '병영국가화' 해왔던 것이다.

게다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특수부대출신자들의 국수세력화를 위한 '특진동지회', '해병동지회'등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정치화된 군부 상당부분은 사회의 기득권 집단을 형성하고 군부정권의 유지를 위해 민주세력의 성장을 차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무사는 '군사보안'을 내세워 전화도청과 우편검열등을 통해 군인들 사생활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밀폐된 공간인 군내에서의 비민주적 요소는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특히 선거때에 극명히 드러난다. 올해 제14대 총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3월 22일 육군사단소속 이지문중위에 의해 군부재자 투표부정이 폭로된 이후 반민주적인 군의 정치적 비리가 알려지면서 군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민중적차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춰 반핵평화운동단체에서는 '민주군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평화연구소 연구원인 김창수씨,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실 연구원인 김철민씨, 그리고 89년 전경단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전경해체'를 주장했었으며 현재 윤석양 후원 사업회의 간사로 활동하는 연성흠씨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먼저 '한국군 신군사 전략과 한국군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김창수씨는 "'자주군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대미종속의 심화를 보이는 정권은 미전략측에서 한국군의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변화하는 한국군의 실상을 소개했다. 소연방 해체이후 한·미 양국간의 역할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의 신전략측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곧 이어서 그는 "한국군의 군사전략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의 계획은 첨단무기를 중심으로 군력을 정예화 하는 것"이라며 그 골격을 제시하고나서 리투표행위', '기표소 설치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상급자앞에서의 공개 기표', '중간검표에 의한 야당표 무효화', '투표결과 조사후 채발'등을 들어주었다. 이에 맞서 광주민중항쟁 이래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징집거부자와 상급자에 대한 저항이나 명령불복종, 탈영, 의문사, 자살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군민주화 노력의 일환으로 군인, 전경, 방위병들의 양심선언이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대 내 민주적 병사조직의 맹아적시도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군민주화 운동사를 연구한 김철민씨는 "80년 광주 민중항쟁의 한 복판에서 전투한 최후의 비장카드인 계엄군중 한 병장이 민중과의 충돌현장에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목숨을 끊었던 반민중성에 대한 저항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초기의 투쟁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80년대의 비민주적인 군대내 군인들의 운동사를 "숱한 의문사와 이의 진상규명투쟁, 장교·사병·전경·의경들의 양심선언과 집단행동, 방위병들의 목숨을 건 투쟁, 그리고 이에 맞선 군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요약한 후 특히 "80년대초 군내의 개별적이고 고립분산적인 싸움에서 87년 6월항쟁과 대선국면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대중적 싸움으로 진전된 것"은 주목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90년에서 현재까지는 군자주화·민주화 운동세력과 이를 탄압하는 친미군사정권과의 날카로운 대립의 시기로 분석된다.

기무사의 대국민 사찰, 강제징집, 사병들에 대한 기무사의 기초조사 감시통제,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 의문사, 군과 관련한 각종 조직사건의 조작등 군정권에 의한 일련의 탄압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90년대 각급단위에서의 병영학교와 전국적인 강제 징집철폐투쟁, 예비역 복학생들의 자주적인 예비군 훈련 쟁취 투쟁으로 표면화 된다"고 김철민씨는 말했다. 89년 상반기의 양심선언에 비해 보다 집중적인 양심선언이 전개되는 91년 4~5월에는 군민주화운동이 민중들과 연대하여 군기 교육대가 설치"되어 사병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의 비민주적인 실상을 소개했다.

"이런사람은 군의 민주화가 군규율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이것은 '군의 민주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군의 민주화는 군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개진, 자유로운 비판, 민주적인 결정방식을 보장하며 상호신뢰와 상호자극에 기초한 민주적인 규율을 강조하게 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회의 발제자들은 사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의 폐지와 군사회의법의 개정,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고등학교·대학교의 군사훈련 전면 폐지 등 민주군대건설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민주운동세력들의 총체적인 지원·지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이상의 군의 민주화에 대한 발표회는 군인들을 위한 군대 밖 사회에서의 상시적 지원과 대책기구결성의 필요성이 절대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군의 민주화는 몽둥이 규율과 반동일직인 반공·반북 논리를 필치는 지배세력에 대항해 우선 군을 구성하고 있는 청년군인들의 조직적인 역량과 민중차원의 민주화 열기가 병행될때에라야 비로소 진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미화 기자〉

정권은 군사력 증강 위해 민족주의 악용
군의 민주화는 군인과 민중의 조직적 연대로

"이것은 정권이 군비축소화 시대에 대처해 양적군비를 줄이는 대신 질적증강을 꾀하는 군력의 군살빼기 작전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지배세력들이 이러한 군사력 증강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를 가리키면서, "군사력 증강만능주의는 통일한국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이에 덧붙여 김창수씨는 "통일조국의 안녕은 평화적 통일에 바탕한 민족역량으로 지켜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바탕한 군사력의 적정규모유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한국의 신군사 전략속에서 자행된 군부재자 투표 선거부정에 대해 연성흠씨는 "이는 명백히 자유·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갖가지 부정사례로써 '대통령선거법'의 무력화 시도, 강제징집, 사병들에 대한 기무사의 기초조사 감시통제,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 의문사, 군과 관련한 각종 조직사건의 조작등 군정권에 의한 일련의 탄압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90년대 각급단위에서의 병영학교와 전국적인 강제 징집철폐투쟁, 예비역 복학생들의 자주적인 예비군 훈련 쟁취 투쟁으로 표면화 된다"고 김철민씨는 말했다. 89년 상반기의 양심선언이 전개되는 91년 4~5월에는 군민주화운동이 민중들과 연대하여 군기 교육대가 설치"되어 사병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의 비민주적인 실상을 소개했다.

"이런사람은 군의 민주화가 군규율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이것은 '군의 민주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군의 민주화는 군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개진, 자유로운 비판, 민주적인 결정방식을 보장하며 상호신뢰와 상호자극에 기초한 민주적인 규율을 강조하게 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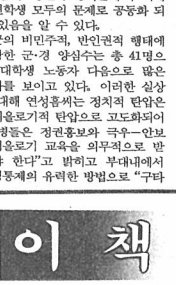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회의 발제자들은 사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의 폐지와 군사회의법의 개정,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고등학교·대학교의 군사훈련 전면 폐지 등 민주군대건설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민주운동세력들의 총체적인 지원·지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이상의 군의 민주화에 대한 발표회는 군인들을 위한 군대 밖 사회에서의 상시적 지원과 대책기구결성의 필요성이 절대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군의 민주화는 몽둥이 규율과 반동일직인 반공·반북 논리를 필치는 지배세력에 대항해 우선 군을 구성하고 있는 청년군인들의 조직적인 역량과 민중차원의 민주화 열기가 병행될때에라야 비로소 진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미화 기자〉

이 책 — 실천의 무기 희망의 열쇠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1992년 4월, 소나무)는 민족경제론의 주창자이며, 해방 이후 남한 많에 정치경제학을 북원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인 전보학계의 원로 박현채(조선대)교수를 비롯한 총 17인의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한 전문 연구가들이 집필한 논문집이다.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인 각각의 이론적 정파적 입장에 따라 현대사를 재단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현대사를 5시기로 나누어 총 5부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부마다 2—4편의 글을 실어 각 시기의 주요 사건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부문별로 그 시대를 총괄하고 있다.

제 1부는 전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민족분단, 미군정의 성립과 정책, 해방후 사회운동의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9월 총파업, 10월 인민항쟁, 단선 단정 반대투쟁 등의 대중적 투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분단의 실질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생각케 하고 있다.

제 2부에서는 195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전쟁의 구조·기원·원인·영향, 50년대의 국가경제과 자본의 중속적 축적과정, 4·19혁명의 배경, 5·16의 배경 등을 세계사적인 역사의 흐름속에서 파악한다. 즉, 미국에 의한 철저한 중속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30년간의 반민 무풍성에 비교한다면 한국이 지난 10년간 반미의 핵으로의 부상은 지배 중속관계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 주는것'이라는 책의 귀절에서도 쉽게 확인 된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국사회 국가기구의 정비와 경제정책, 미국 경제에의 중속적 자본축적에 의한 중화학 공업화의 심과와 모순, 세계사적인 경제의 분업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독점자본의 한국진출, 광주민중항쟁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80년대 한국경제의 국제분업으로의 편입에 의한 자본의 독자성 강화, 83—85자율화 이후 확대된 민족민주 운동의 급격한 발전, 4·13호헌, 6·29 등을 통한 대중적 운동의 발전과 5공정권의 몰락 등이 제3부와 4부 내용을 채우고 있다.

제 5부 '냉전질서의 해체와 6공화국'에서는 6공화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서 6공화국의 실정이 '총체적 난국'으로의 파행적 국가운영의 밑바탕이 됨을 규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한국 현대사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 변혁운동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서 절실하다. 그러나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관변학자들의 연구에 반하여 한국사회의 변혁운동 관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인 현대사 연구가 시작된 것은 불과 1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론이나 세력이 현실의 혼란스러운 외면적 변화에 휩쓸린다든지, 아니면 주체적인 노력을 방기한 채 역사에서 의외의 결과만을 기대한다든지 한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이름앞에 '변혁'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한 나라 역사발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법칙해명을 위한 소재로서만이 아니라 한민족, 한국가의 역사과정의 특수성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성이 요구된다.

이 책에서는 짧은 연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를 보는 시각에 구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아직도 부족하기만 한 현대사 연구가 상세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와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올바른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폭을 심화시키는 작은 계기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햇 글

■책마을로 가는 징검다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엮음)

청소년들의 생생한 삶이 담긴 생활글과 우리문학작품, 외국 문학작품등 청소년을 위한 책 202권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역사·철학·사회·그리고 과학·환경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실린 소개글은 독자가 책을 고르기 전에 그 책이 내용과 장점을 이해하는 데 징검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돌베개 펴냄. 4천원〉

■힘찬 우리역사—자주와 예속의 기로에서(이찬행 지음)

이책의 저자는 해방정국 속에 뛰어들어 수없이 많은 민중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생존해 있는 역사의 인물들에게서 얻은 중언을 토대로 역사를 서술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남한사회를 중심으로 다루되 시각은 전한반도적으로 넓혀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힘 펴냄, 5천6백원〉

■바로 읽는 알뛰세(엘리스 캠미니코스 지음. 이진수 옮김)

마르크스 철학이 던진 여러가지 문제의 중요성을 밝히고 알뛰세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이 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마르크스주의에 알뛰세의 작업이 공헌한 점에 비추어 그를 비판함으로써 매듭짓고 있다.

〈백의 펴냄. 3천5백원〉

■한국의 대기업 노사관계 연구 (박준석 지음)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인식을 위해서는 생산현장 수준에서 전개되는 행위주체들간의 구체적인 전략적 상호작용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들과 결합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서는 기업내의 노사간 '권력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의 성격과 과정에 대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백산서당펴냄. 8천원〉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2항은 "국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경우를,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경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써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경우를 제5항은 "제1항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운반·반포·판매·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그 이익을 위해 활동할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결사상의 자유를 전제하고 있고 정치활동 자유의 기본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조항은 이적목적이라는 정권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결사자체를 탄압함으로써 사상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마저 질식시키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적목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민중운동단체 특히 89년 이후에는 노동운동단체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들단체들은 지배세력에게 북한의 주장이나 활동과 자신들의 그것이 이렇게 다르고, 또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로 조작되어 왔다. 최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에 대한 정권의 억지 조작탄압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한편, 현정권은 남북 합의서 발효 이후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까지 마친 상황에서 통일의지의 상징인 공화국기를 일부 대학에서 게양한 사건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탄압을 가하는등 시대착오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정책을 일삼고 있다.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기업문화 '脫'시리즈—①
럭키 제4세대항생제 개발편

제4세대 세파계항생제 본자구조도

脫
固·定·觀·念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항생제 신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럭키금성의 진취적인 기업문화가 창조적 결실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열악한 신물질 연구환경 속에서 단 6명의 인원으로 개발 성공한 제4세대 항생제—
불가능의 벽을 깨려는 도전과 개척의지,
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진취적인 기업문화가 어우러져 이루어낸 자랑스런 쾌거입니다.

럭키 신규 세파계 항생제 개발팀장 김용주박사

"'일당백'의 우수한 두뇌도 두뇌지만 시로의 강한 개성을 한데 묶어준 연구 분위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에 들어가기 전,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난 것을 특히 강조해온 김용주 박사(36)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팀 분위기를 위해 힘쓰는 팀장이지만, 그 스스로는 신물질 연구를 위해 사흘 밤낮을 말 한마디 없이 보낸 고집과 침묵의 연구광이기도 하다.

럭키금성

아직도 북한은 이적단체인가?

◇공화국기 게양 탄압의 본질

최근 들어 각대학에서는 공화국기 게양이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권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학생운동진영을 탄압하고 있다 〈사진:한겨레 신문〉

전당대회 앞두고 반민자 투쟁 희석화 노린 여론조작

공화국기게양 탄압은 정권의 반통일성 폭로

최근 전남대, 동아대, 전국대에서 있었던 북한국기(이하 공화국기)게양과 관련하여 경찰이 대대적인 수배·검거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공화국기 게양 관련자 전원 검거령'과 함께 '공화국기 게양 조짐이 보이는 대학에는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학원내로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라는 경찰청의 특별지시와 함께 전대협의장을 비롯한 전대협 간부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등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와 때를 맞추어 각 제도언론에서는 학생운동권의 시대착오적인 폭력운운하며 이제 학생운동은 스스로 파산선고를 했다며 아예 여론재판까지도 자임하고 나섰다. 언론에서는 이번 공화국기 게양이 최초라는듯이 보도하며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이전에도 서울대 및 작년 동총련 통일대축전 포스터에 태극기와 공화국기가 동시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때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다가 유독 이번 공화국기 게양에 대해서만 전례없는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마치 작년 본교에서 벌어진 6·3투쟁의 의도적 왜곡처럼 사건의 발단배경이나 본질은 가린 채 나타난 현상 자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정세전환의 호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화국기 게양 사건은 그 의도하는 바가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일을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정권과 언론의 유난스러운 흐들갑 뒤에 가려진 '여론조작'의 본질을 의심케 한다.

문제가 되었던 공화국기 게양은 지난 8일 남총련 조국통일위원회출범식과 부경총련 출범식에서 발단이 되었다. 8일 남총련 조국통일 출범식의 마지막 행사로 준비되었던 조국통일 결의 다지기 순서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의미로 남과북의 국기를 연단 좌우에 게양했던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상징하는 한반도 단일기가 중앙연단을 향하면서 식장에 있던 학생들이 단일기를 흔들면서 촛불글씨로 '조국통일'을 새기며 끝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다. 부경총련 역시 이와 별반 다름이 없다. 그 행사에서 부자시키려 했던것이 공화국기가 아니라 통일을 의미하는 한반도 단일기였다는 점만봐도 현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이적단체 찬양·고무'는 아무런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이적단체 찬양·고무라는 것이 남북합의서가 교환되면서 '남북 상호체제를 인정한다'라고 분명히 양 당국자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다는 것은 합의서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현 정권의 주장처럼 북한이 과연 이적단체라면 남한총리가 그 이적단체의 총리와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것은 왜 '이적단체 찬양·고무'에 적용되지 않는가? 현정권은 북한을 통일해야 할 또다른 반쪽 민족이라고 인정한다고하면서도 단지 청년학생들이 그 반쪽민족의 국기를 게양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는것 밖에 안된다.

남총련 의장 송진환(전남대 총학생 회장)군은 "남북은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기에 북한국기, 태극기, 단일기의 등장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학우들 앞에 공화국기를 선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순수한 통일의지는 외면한 채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허울좋은 논리를 펴고 있지만 그들의 의도는 5월 민자당 대권구도를 결정짓는 시기에 이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강력한 투쟁에 대응할 탄압의 빌미가 없자 시민들의 반공의식을 이용해 시민들과 학생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입니다."라며 정부의 공화국기 게양 탄압을 '여론날조'라고 일축했다. 송군의 말처럼 이번 공화국기 게양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은 5월19일 민자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양되고 있는 국민들의 반민자당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함께 이후 29~31일에 있을 전대협 출범식과 관련하여 사전에 '견수'를 잡아 이의 대규모 탄압으로 학생운동의 위축을 노린 것이다.

그것은 19일 전국연합이 주최하는 국민대회를 불허한다며 이에 대비해 전국 각 경찰서에 비상근무령을 내린것만 보아도 현 정권이 이사건을 계기로 무엇을 의도하는 지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공화국기 사건에서도 증명되듯이 남과북이 화해와 평화공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현정권의 '체제유지의 첨병'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대협 대변인인 김정기(한양대 총학생 회장)군은 이번 공화국기 사건을 논평하면서 "공화국기 사건에 관한 현 정권의 탄압을 보면서 이제 국보법 철폐는 즐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을 막아내는 투쟁만으로는 정권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한 이번 전대협의 투쟁이 국보법 철폐의 요구로 문제의 중심이 모아지지 못하고 여론이 공화국기 게양 여부에만 쏠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분명한 요구가 심각히 흐려지는 속에서 투쟁의 핵심적 내용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전대협은 공화국기 게양을 잠정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화해, 남북 상호 인정의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 이행의 초보인 국회비준을 요구하는 투쟁을 14대 국회개원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며 많은 성과가 쌓이고 있는 서신교환과 초청사업등 민간차원의 교류운동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갈 것입니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국보법 철폐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현숙 기자〉

◇산업구조 조정정책의 배경과 문제점

생산성향상 허울아래 짓밟히는 노동자

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대량실업 강요당해

고용요건 완화 정책 철폐투쟁으로 고용문제 해결해야

손가락 잘린 노동자. 다리 잘린 노동자. 이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일한 댓가로 받는 월급은 2~3십만원대. 남한 사회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왔다. 87년 이전까지·자본가들의 이윤추구방식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반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변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되어 가고있다.

산업구조 조정 정책에 따른 대량해고,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87년이후 남한의 자본가들은 더이상 저임금정책으로 인한 잉여가치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른바 산업구조 조정정책이 그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정책이 실시되게된 국내외적인 배경으로는 첫째, 87년 이후의 급속도로 고양되기 시작된 노동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와 같은 저임금 구조로 인한 잉여가치 창출이 어렵게 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생산 기술의 고도화와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게 된다. 둘째로 87년 이후 고양된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방편 모색중의 하나이다. 셋째로 외적인 요인으로 이미 서구선진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대량생산에 근거한 포드주의의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중심으로 이전되어 가고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호무역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수출이 87년 이후 급속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에 자본가 측에서는 기술의 고도화·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산업구조 조정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은 87년부터 추진된 6차5개년계획 에서부터 시작되어왔다. 이는 국제경쟁력 향상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자본가와 정권에 의해 은밀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노동자들 에게는 대량실업, 고용불안정, 저임금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조정 정책은 87년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노동운동탄압의 효과적인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은 산업합리화라는 명목하에 주로 사양산업에 대한 업종전환, 성장사업에 대한 고부가 가치화, 첨단산업으로의 집중이라는 세가지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석탄, 고무, 의류등 5개업종을 이미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해 관련되는 중소업체들을 대량으로 휴·폐업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따른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등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그 피해정도는 심각하다. 또한 전산업에 걸쳐 자동화와 기업경영합리화라는 측면을 내세워 대량으로 기계화 시켜버림으로써 발생되는 대량실업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전까지와는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해고의 사유로 '감원을·하지 않을경우 회사가 도산에 처해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뿐만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내지 강화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혁신에 의해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등의 이유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함으로써 경영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시킬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준 셈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대량해고에 따른 실업사태, 노동강도 강화에 의한 작업환경 저하, 상용고용대신 시간제나 임시고용을 필요에따라 증감시킴으로써 나타는 고용불안 문제등을 안고 있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대량실업은 산업예비군층을 두텁게 형성하게 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상용고용대신 아르바이트학생과 주부사원을 대거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불안정고용의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불안정 고용 및 실업등의 고용문제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나타날수 밖에 없는 현상이며, 앞으로 계속되어 나타나게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운동계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문제 해결의 필수조건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꼽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ILO가입에 따라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노동악법에 대한 개·폐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총액임금제 적용과 관련하여 92년 임금인상투쟁의 핵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로 총액임금제 저지, 고용불안의 해소, 노동악법 개·폐작업등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방향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지며, 고용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해고요건 완화정책이 우선 철폐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고용불안정 및 대량해고등 산적해 있는 노동문제는 이제 더이상 한개의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며,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로 다가올 전망이다. 남한사회에 있어서 산업구조 조정정책은 산업합리화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무기로 작용해 오고 있으며, 대량해고에 따른 실업사태를 유발시킴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권동순 기자〉

진리 · 평화 ·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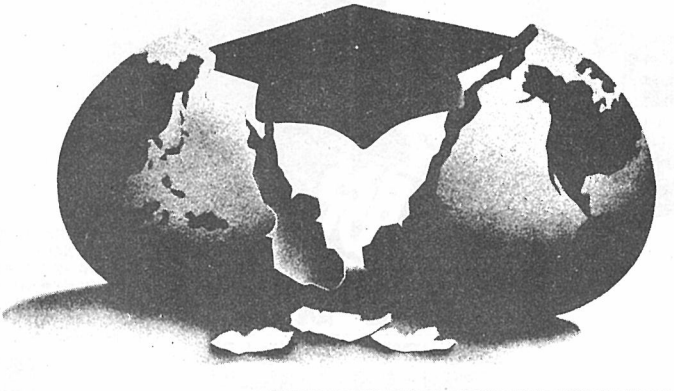
미래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산실

—균형있는 학문발전과 교육의 선진화

세계를 호흡하는 知性과
미래지향적 국제인을 양성하는
외대는 21세기를 대비한
학문의 터전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상과 넓은 포부로써
학문의 본질을 탐구하는 外大人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대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문의 실용화에
앞장서 나아가며 제반 학문의 선진화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동구어계열과 자연과학 분야에도
학문의 영역을 확대하는 외대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인재를 산출하는
학문의 場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분연히 떨치고
오늘도 외대는 겸질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으로 힘차게 힘차게
미래로 나아 갑니다.

韓国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민족예술의 대중적 접목을 진단한다

세번째 민족음악

식민시대 낡은 유산 청산하고 전민족적 음악을…

서울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의 노래판굿 '칠사랑 2'

금을 전개하기전에 대중화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자. 흔히 대중화를 합법화 혹은 대중성 획득이란 의미로 차용하는 경우가 자주있다. 즉 우리의 민족예술이 그동안 제도권 혹은 상업권과는 일정부분 궤를 달리하여 진행되어 왔으므로, 지금 주요한 문제는 대중의 정서를 이해하고, 제도공간으로 시급히 진출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이다라는 고민을 한다.

그러나 이감에 따라, 아니 방식에 따라 대중화의 진행은 자칫 우리민족예술운동의 발전의 도를 삭감하거나, 그동안 진행되어온 진행방식을 흐트려놓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부항적이거나 패배적인 의미로 이말이 진보될 위험성도 있다.

대중화는 전선적 개념이다. 우리 민족예술운동의 전민족적, 변혁적 완성을 위한 실천과정으로 대중화를 이해해야 하고, 또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주동적인 관점을 올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민족예술의 예술적 본질을 틀어쥐고, 이것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실천이 성립된다. 자세하지 않지만 이 정도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대중화를 고민해 보자.

민족음악의 발전현황

'민족음악'은 아직 그 구체적 내용이나 형태에 있어 보편적 인식의 합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음악이라는 실천적 과제의 제시가 짧음에 기인하고 있다.

80년대를 줄달음치듯 실천의 영역을 파악 넓힌 노래운동이 노동자 계급이 노래의 주체로 다가서고 있다라는 인식하에 이제 우리의 운동은 민족음악 운동으로 자신의 궤도를 설정해야 한다며 민족음악운동을 90년대 실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즉 노래운동의 영역이 민족이 주체인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 지며 이들에서 향상되어 나오는 노래야말로 민족음악이다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노래운동과는 다르게 조용하게 자신의 존재와 음악적 삶의 깊이로부터 민족음악을 전망해 낸 제도권 음악인들의 실천이 80년대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 온다.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인 나는 왜 서양음악을 우리음악으로 착각하고 공부해 왔는가' '음악은 진정 이시대의 역사와 민족과는 무관할 것인가'하는 진지한 고민과 자신에 대한 존재부정으로부터 서양음악이 아닌 한국음악, 다시 민족음악으로 인식과 실천의 깊을 넓혀 간다.

그리고 이런 주요한 두 흐름인 민족음악운동과 민족음악은 80년대를 정리하며 하나의 실천대오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민족음악이 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과연 민족음악은 노동자들의 음악적 내용이 다인가, 또한 실천운동으로서의 선동이 최우선인 과제인가, 아니면 진보적 인식의 내용인가, 아니면 양식적 문제로 전통적이고, 민족적이고, 진보적인 우리의 음악적 내용을 오늘의 의미에 능동적인 음악으로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등등의 여러가지 고민이 안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

객관적 현실분석 통해 다양한 양식 시도해야
대중들의 민족음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지금까지의 노래운동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특히 양식과 어법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노래의 대다수가 일본군가, 뽕짝, 발라드, 기존의 대중가요풍의 차용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때, 이제보면 제국주의 문화침략을 합법화시켜주는 악영향을 한것도 일면 부인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노래운동의 음악적 내용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라는 견해가 제시된다. 그러나 노래운동의 발생과 실천선상에서 긴밀하게 맺어진 정치적 활동은 또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반대로 민족음악을 이른적으로 양식적으로 전개해온 음악인들은 대중적, 정치적 입지에서 노래운동보다는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대중화의 실천작업

이런 측면에서 민족음악은 대중성을 얻고, 합법성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상업메카니즘을 이해하고, 대중들의 노래에 대한 집수성을 체득하여 음반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지금 최우선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대중화라는 실천선상에서 문제에 대한 근본과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역사적 경험, 보급과 향상, 그리고 조직 노선들을 올바로 정립해 낼 필요가 있다.

민족음악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민족이 오랜 기간 합의해 오고, 발전시켜온 음악적 내용은 무엇인가하는 것과, 그 음악이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음악의 현실은 어떠하고, 이것을 풀어나가야하는 주체들의 역량은 과연 어떠한가하는 객관적인 분석의 내용이 필요하다.

민족음악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내부적 합의와 실험, 그리고 대중적 토대위에서 다시 향상시켜오는 그런 실천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의 대중에게 주어진 음악적 상황과 체험은 식민지시대의 낡은 유산과 교육의 내용이 그대로 강요된 청산해야 할 대상인 것이고, 민족음악을 세워 나가는 것도 바로 이런 제국주의적 음악내용을 타파해 나가는 과정이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민족음악의 이론가이며 작곡가이며 주요한 실천가중에 한분인 이 건용씨는 민족음악의 실천에 있어 민족음악론이 그에 걸맞는 음악양식을 발전하는 단계에 이를 때, 그리고 노래운동이 이념에서뿐만이 아니라 양식에서도 민중성을 획득하는 단계에 이를 때 민족음악론은 민중음악론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그동안 분리되어 왔던 제도권 안팎의 활동이 하나로 통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전망한다.

실제로 노래에 있어 정세현의 경우나 이건용의 '그렇지요' '배웅'등등 양식에 있어 뛰어난 곡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광주항쟁을 기리는 서사곡 '광주여, 무등이여'등등 노래의 교향곡화, 음악화작업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이제 주된 문제는 이런 양식적 접근에 대한 검토와 이를 전민족적 음악으로 관통시켜내기 위한 대중조직과의 실천작업과 상호적인 교양실천들이 구체적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보급과 향상, 그 기본에 있어 올바른 민중성 획득이 이루어 질 것이다. 여기서부터 대중화에 대한 실천논리를 고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 태 균
〈민족음악협의회〉

신나는 공동체놀이 〈3〉 몸다리기

'줄다리기'가 줄을 이용하는 놀이라면 '몸다리기'는 직접 사람을 잡고 당기는 따로 도구가 필요없는 단결놀이이다.

우선 조를 둘로 나누어 각 조의 이름, 구호, 노래를 정한 뒤, 같은 조끼리 앞 사람의 허리를 껴안고 각조 맨 앞 사람들끼리는 서로 팔을 걸고 마주 선다. 그다음 진행자의 신호에 따라 자기조의 구호에 맞춰 힘껏 서로 잡아 당기는데 이때 먼저 끌어지는 조가 지게된다.

이 놀이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이 끌어왔는가로 가르는게 아니라 어느 조가 끝까지 끌어지지 않았는가로 가른다. 만약 두 조가 모두 끝까지 끌어지지 않았을 경우엔 더 많이 끌어온 조가 이기게 된다. 놀이가 끝난 후엔 두 조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침으로써 서로 싸움의 성과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놀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앞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개개인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집단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 명이라도 팔을 놓으면 전체가 쓰러지게 되므로 전체속에서 개개인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놀이이다.

〈문화부〉

◇'92 세계민속예술축전 준비상황 중간점검

세계의 예술속에 외대인이 살아 숨쉰다

83년에 치뤄진 '세계민속예술제전'

요즘 용인캠퍼스가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밤이 늦도록 강의실마다 환하게 불이 밝히져 있고 여기저기서 외국 민속음악이 흘러나오며, 학생들의 얼굴빛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치루어 낸다는 자부심으로 밝게 빛나고 있다. 바로 '92 세계민속예술축전(이하 세민전)준비로 한창인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모습이다.

19개 언어권 총24개국의 민속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동시에 비언어계열인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대에서는 한국의 전통 춤과 음악을 발표할 예정인 이번 행사는 학내적으로는 행사를 함께 치뤄내면서 그간 학내에 만연했던 개인주의적 풍토를 공동체의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킨다는 등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행사를 계기로 많은 과에서 문예패들이 새롭게 건설되면서 용인캠퍼스의 문화풍토를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의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춤과 노래를 외대인들의 단결된 노력으로 한자리에서 선보일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언론의 왜곡보도로 잘못 알려져온 작년 6·3 정총리 사건의 정당성을 알리고, 당당하게 숨쉬는 본교의 모습을 널리 보여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세민전의 중간준비상황을 점검해 보고,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생겨난 학내 문예패들의 현황과 이후의 발전적 전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세민전은 본교를 대표하는 행사로 계속되어 오다가 학내외적 사정으로 84년 이후 중단되었다. 그후 그 재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마침내 근10년만인 올해, 이전까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해 온 것과는 달리 용인캠퍼스에서 치름으로 치루게 되었다.

현재 각 과별로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행사의 완성도에 있어서 80~9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번 행사는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우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성을 보이는 등 이후 건전한 대학문화의 발전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이번 행사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그간 문화의 불모지라고 불리던 용인캠퍼스에서 세민전을 계기로 새롭게 문예패가 건설된 과가 많다는 점이다. 세민전이 대내외적으로 주목받는 행사인 만큼 학생들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 관심은 적절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예패가 꾸려진 것이다. 또, 존재는 했으나 활동이 부진했던 많은 문예패들도 이번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 새롭게 건설된 문예패들과 함께 세민전을 통해 하나로 묶여 세워지면서 용인캠퍼스 '학내 문화예술운동연합'의 기충토대로써 자리매김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예패들이 결코 이번 행사만을 위한 일회적인 문예패로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다. 행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문예패 활동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문예패가 발전해 갈 때만 이 용인캠퍼스의 건실한 문화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민전은 행사의 준비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대학당국과의 예산문제로 인한 충돌, 행사에 관한 자료의 미비, 총동문회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등 많은 문제가 뒤따랐으나, 발로 뛰며 행사를 준비하고, 밤낮없이 연습에 몰두하는 외대인의 단결된 모습을 볼때 이번 행사는 훌륭하게 치뤄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번 세민전이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학우들만의 것이 아닌 전 외대인을 위한 것인만큼 자부심과 관심을 가지고 모두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에는 서울·용인캠퍼스 학우들이 공동개최하여 전 외대인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더욱 발전적인 세민전으로 변화해 나갈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외대인들의 더나은 세민전을 위한 끝없는 고민과 주체적인 참여이다. 그럴 때만이 세민전을 학교에 대한 외대인들의 애교심을 키우고, 서로간에 강한 결속력을 갖게하는 자랑스러운 외대인의 행사로 굳건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진영 기자〉

우리말의 쓰임새 (216)에게·에게서

○나는 동생에게 공책을 주었다.
나는 동생에게서 공책을 얻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서 노래를 배웠다.

앞 예문의 '에게'와 '에게서'는 이들을 구별해서 써야 하지만 뒤의 예문에서는 '에게서'를 '에게'로도 쓸수 있다. 어떤 물건을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고 할 때는 이들의 경해진 역할이 있지만, 말-칭찬·꾸중·이야기·가르침-들일 경우에는 '에게'와 '에게서'의 구별이 필요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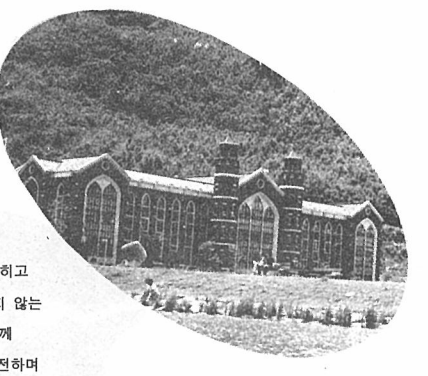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동아리〈우리말 연구회〉

외대인 우리들의 자랑

'92 세계민속예술축전

THE WORLD FOLK ARTS FESTIVAL

리틀엔젤스예술회관 92.6.3~5/2시,6시30분



임장권을 배부 합니다

기간:5. 19(화)~21(목),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장소:학생회관 앞 5·18광장(왕산)
수령방법:신분증 지참, 재학생 명부 확인후 수령
대상:전 외대인(단, 휴학생 제외)
※입장권을 수령하실 경우 희망일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재학생은 낮 공연 위주로 배부됨을 양해 바라며 지정일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배움터의 경우 과학생회에 관람희망을 의뢰하였으므로 과학생회에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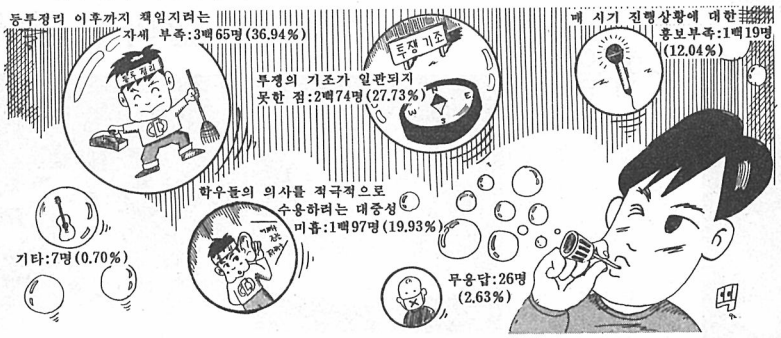
늦은 시간 강의실 환히 밝히고
공연연습에 구슬땀을 아끼지 않는
전 출연진 학우 여러분께
다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전하며
남은 기간 배가의 노력으로
성공 개최를
이루어 냅시다.

※공연·행사 제반 문의는 '92 세계민속예술축전 준비위원회 사무국(Tel 0335-30- 4151)

한국외국어대학교 '92 세계민속예술축전 준비위원회

그림돋보기 - 학생회 사업평가와 총학생회장 궐위 문제

그간의 등투 과정에서 학생회에 대해 느낀 가장 큰 불만은?



최근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사퇴로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와 맞물려, 학우들의 온 힘을 집중해야 할 외대발전의 대장정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학생회사업평가와 총학생회장 궐위 문제를 주제로 한 18일(월) 공청회와 21일(목)에 있을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인준투표에 앞서서 제4대 언론협의회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15일(금) 실시했다.

서울캠퍼스 학생 8백5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은 등투 평가와 총학생회장 사퇴 문제를 내용으로 하였다.

지난 등투 과정에서의 가장 큰 오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학생회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나타났고 올해 등투의 성과로는 제단비리에 대한 인식을 높인 계기가 되고(40.06%) 외대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한 점(32.22%)을 들었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 등투의 주요 관건으로 제기된 재단전입금 확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등투 인식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올해의 등투 평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등록금 투쟁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공간을 비상학생총회등 등투 집회(21.01%)와 과나 단대별로 이루어진 토론회(13.12%) 그리고 총학생회게파 넘부(11.08%)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대자보 작성, 서명 운동, 소식지를 읽고 친구들에게 홍보 등의 방법이 있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에 묻고 싶은 사항은 주로 사퇴 이유(21.01%)와 이후 방향(11.59%)으로 촛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할 것(8.28%)과 공개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의 총학생회장 사퇴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궐선거, 권한대행, 단대협의체 구성의 의견 중에서 '현 총학생회의 총사퇴와 이후 보궐선거'(41.57%) '현임 부총학생회장의 권한대행'(40.78%)이 비슷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18일 공청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로 의견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학생회가 얼마나 긴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학생회 간부와의 친밀도를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회가 있으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48.98%) 학생회 간부와 항상 만나 이야기하기도 하지만(16.68%)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0.14%로, 관심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가 9.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문항인 간부들이 지향해야할 모습과도 연결이 된다. 학생회 간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32.48%)와 학우대중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29.74%)를 꼽을 수 있다. 이와같은 모범적인 학생회의 노력 속에서 신뢰와 의리의 공동체는 제 주인을 찾아갈 것이다.

다음은 이후 학생회 사업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외대발전으로 나타나는 학원자주화투쟁과 5, 6월 민주대개혁 정치투쟁은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3.33%, 외대발전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학우들의 집결된 힘이 먼저 구비되어야 정치투쟁에서도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 47.77%를 보였다.

이들 외대발전의 문제, 정치투쟁으로서의 민주대개혁,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당면하고 있는 총학생회장 궐위의 문제는 모두 외대구성원의 단결력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기층 단위로부터 전달되는 의견과 비판들이 조직적인 학생회 단위에서 올바르게 소화되어 선진적 방안을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서로에 대한 신뢰속에서 주고받는 이러한 대화의 작업들이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충미 기자〉

설문 조사 결과

질문1. 그간의 등투 과정에서 학생회에 대해 느낀 가장 큰 불만은?
등투정리 이후까지 책임지려는 자세 부족:3백65명(36.96%)
투쟁의 기조가 일관되지 못한 점:2백74명(27.73%)
학우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대중성 미흡:1백97명(19.93%)
배 시기 진행상황에 대한 홍보부족:1백19명(12.04%)
무응답:26명(2.63%) 기타:7명(0.70%)
질문2. 위에서 지적된 오류와 함께 올해 등투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제단비리에 대한 인식을 높인 계기:3백73명(40.06%)
외대발전에 대한 구체화인 틀을 마련한 점:3백0명(32.22%)
예년보다 잘 진행된 이론·실천 공동투쟁:88명(9.45%)
과총회, 학년총회 등 자발적인 토론 분위기 형성:45명(4.83%)
무응답:1백3명(11.06%) 기타:22명(2.36%)
질문3. 전체적으로 올해의 등투를 평가 한다면?
매우 긍정적:3명(0.35%)
긍정적:54명(6.31%)
보통:1백54명(18.24%)
부정적:3백62명(44.67%)
매우 부정적:2백56명(29.94%)
질문4. 올해의 등투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공간은?(주관식)
질문5. 총학생회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에 묻고 싶은 것은?(주관식)
질문6. 총학생회장 사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은?
현 총학생회의 총사퇴와 이후 보궐선거:3백70명(41.57%)
현임 부총학생회장이 권한대행:3백63명(40.78%)
단대협의체 구성:1백1명(11.34%)
기타:35명(3.93%) 무응답:21명(2.35%)
질문7. 총학생회장 사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개적, 공식적인 사퇴표명이 없었던 점:3백89명(39.97%)
7천학우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2백82명(28.98%)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전체 학생회 간부들의 태도:2백57명(26.41%)
기타:32명(3.28%) 무응답:13명(1.33%)
질문8. 자신과 가장 가까운 학생회 간부(과회장 등)와의 친밀도는?
가끔씩 기회가 있으면 의견개진을 한다:4백11명(48.98%)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1백69명(20.14%)
항상 만나 이야기 한다:1백40명(16.68%)
누군지도 모르며 관심도 없다:76명(9.05%)
무응답:38명(4.52%) 기타:5명(0.59%)
질문9. 앞으로 학생회 간부들이 지향해야할 모습은?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3백44명(32.48%)
학우대중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3백15명(29.74%)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세:2백23명(21.05%)
정치 사상의식을 투철히 하려는 자세:1백33명(12.55%)
무응답:40명(3.77%) 기타:4명(0.37%)
질문10. 18일 공청회와 21일 총학생회장 인준투표에 대한 견해는?
참여는 하겠지만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이후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3백67명(42.92%)
행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2백72명(31.81%)
현실을 극복하려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1백31명(15.32%)
기타:50명(5.84%) 무응답:35명(4.09%)
질문11. 학원자주화투쟁(외대발전)과 5, 6월 정치투쟁(민주대개혁)에 대한 이후 학생회 사업방향에 당신의 견해는?
사퇴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외대발전의 문제가 시급하다:4백50명(47.77%)
외대발전과 사퇴민주화는 병행되어야 한다:3백14명(33.33%)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외대발전문제보다 사퇴민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62명(6.58%)
기타:78명(8.28%) 무응답:38명(4.03%)
질문12. 공청회 내용이나 진행상에 있어 제기하고 싶은 말(주관식)
설문조사 대상:서울 캠퍼스 학생 8백55명
조사 일시:5월15일(금)

평수당 明水塘 현시욕의 공해

무비판적으로 시류에 부유하는 소아병적언행을 이제는 버려야

이 상 준
〈영어과 교수〉

산업 사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문명 사회이다. 일례로 원시시대에서 부터 산업 사회의 시대에 이르기 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의 연장은 굉장하다. 산업 사회의 그러한 문명의 혜택이 이면에 소위 공해라는 것이 부작용으로 나나타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발달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못지 않게 그것의 부작용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산업 사회의 필수적인 역군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들중에는 무책임하게 공명심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산업의 발달에서 오는 부작용못지 않게 악폐를 끼치고 있다. 년전에 이상구라는 의학박사가 미국에서 소위 일종의 의학평론과 같은 행세를 하더가 난데없이 귀국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현대식 식생활과 성인병에 대한 강의를 일련으로 하여 세인의 주목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기 까지 했다.

컴퓨터는 20세기 후반의 필수적인 문명의 이기이다. 요즈음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 문명인들로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무책임하고 성급하게 컴퓨터에서 흘러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연구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날뛰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무책임한 자기 현시욕이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겨 주어 정신적인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는 이상구 박사처럼 역시 미국에서 느닷없이 들어와 심지어 TV의 공해가 암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 시키는데 앞장 서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전문가들에게 경고한다. 식자유환이라는 말을 먼저 앞아 보기를 바란다. 뚜렷한 근거가 없고, 정확하고 철저한 연구를 해보지 않고서 함부로 말을 지껄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신빙성이 낮은 가설을 성급히 대중매체에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 자체가 부서운 공해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정신 공해에 앞장 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중매체에 증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그러한 말을 들으면 서로 앞을 다투어 경쟁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기사화한다. 무책임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달없이 잘 살아 온 사람들에게 일부러 공포감을 조장하여 끌어 부스럼 내고 있는 그들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몇몇 부유층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국민 대다수가 안방에 TV를 두고 본다. 그런데 이규학 공의학박사라는 사람은, TV를 방에 두고 자면 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고 어떤 여성 잡지에 기고했다. 그는 대다수가 밤에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한 잠을 자게 하도록 하고 있음을 모르고 어설픈 지식을 털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잠꼬대 같은 말을 하여 작년 여름에는 전국의 모든 양어장들을 망하게 했던 엉터리 신문 기사가 얼마나 큰 해악을 나라에 끼쳤던가?

만유인력의 원리, 인류의 진화, 국가의 경제성장과 같은 가설들을 내놓은 뉴우튼, 다윈, 스미스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들의 가설을 책자로 묶어 세상에 발표하기 전에 한 세대의 시기를 놓고 뜸을 들이며,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에 말한 우리들의 소위 과학전문가들이나 매체에 증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박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일반인들이 스스로 알고, 정신적인 공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네는 무엇인가 조금만 인기를 끌거나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파리 메처럼 몰려와 서로 다투어 빨아 먹고 무엇인가 조금만 "세인"의 지탄을 받거나 손해가 되는 것이면 벌떼 처럼 몰려 들어 쏘아댄다. 예컨대, 어느 TV의 어떤 프로가 인기가 있으면 다른 TV도 그와 비슷한 것을 같은 시간대에 방송한다. 지난 정원식 총리서리 우스개 사건이 벌어 졌을 때 모든 방송들은 물론 신문들이 일제히 약속이나 하듯이 관련된 학생들은 물론 전체 외대에 대하여 비인륜, 패륜, 도시 게릴라, 극악 무도한 짐단 등, 사전에 있는 모든 비슷한 낱말들을 다 동원하여 벌떼처럼 독침을 쏘아대는 일대의 장관 아닌 웃음거리를 만들어 내는 데에 경쟁적으로 악을 썼다. 그 결과 광역 선거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14대 총 선거의 결과는 여당 자신이 "참패"라는 말로 자인한 정반대의 현상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GNP로 보아 우리들보다 뒤떨어진 나라들은 물론 아만사회에서도 이런일들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진절머리나는 경박하고 천박한 소아병적인 언행은 그만하고 좀물 좀 마시고 성숙된 국민성을 보이게 깨닫기를!

다른 대학 에선

건국대학교

학원침탈로 오히려 통일 단결의 의지 고조

통일과 단결의 의지를 고양하는 자리로 마련된 건국대의 대동잔치 첫날인 지난 13일(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기 게양과 관련한 공권력의 학원침탈이 있었다.

이날 늦은 2시30분경 건대생 3백여명이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며 한반도가 그려진 단일기와 태극기, 공화국기 등을 하나로(정문에서 부정문까지의 길)에 게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3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공화국기 게양을 이유로 3천5백여명의 전경이 학교에 투입되어 학생들과 2시간여 공방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4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총학생회장 등 4명에게 수배조치를 내렸다.

국가보안법 이기기 운동의 일환으로 있었던 이번 사건으로 학생들의 통일열기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건국대 총학생회는 오늘 5·19만민자당 투쟁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다.

벽이란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한다?

*베를린의장벽한조각, "FREIHEIT"(독일어의 "자유")인 듯한 글자의 일부가 보인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던 날
한반도에서 건너간 한 청년의 느낌은 남다른 바 컸습니다.
둘로 갈라졌던 하나가 다시 합쳐지는 당연한 모습을
놀라운 시설로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벽에서 관념의 벽, 그리고 분단의 벽까지 —
아직 "무너뜨려야 할 벽들"이 많은 우리 주변의
현실을 생각한 까닭에 더욱 그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문화와 생활습관까지를
몸에 익히는 것이 주어진 일의 전부였던
나의 해외 파견사원 생활 …
나에겐, 벽이 무너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깊진한 소중한 기회 였습니다.

꿈은 원대하게, 인재는 소중하게 —
창업 이래 "인재제일"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 종합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다양한 제도와 지원으로
꿈을 주는 평생직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1년간 파견되었던 이재원사원(88년 8월 입사)이 베를린 장벽을 깨고 있다.

삼성물산

되살아오는 참교육의 함성

정권유지 교육에서 민주화 교육으로 전환 선언

교육 대개혁안 쟁취로 참교육 실현해야

89년 교사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외치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창립되었다. 올해로 전교조 결성 3주년을 맞게 되는 전교조는 그간 많은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올해는 교육대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89년 해직된 한선생님을 통해 해직교사들의 '생활을 들어보며, 이후의 교육운동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전교조 결성 3주년을 맞아 전교조는 교육 대개혁안을 제시하고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네가 국민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라"라고 아들녀석과 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해 못내 아쉽다고 김영국 선생님은 말한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 총무국장을 맡고있는 김영국 선생님은 89년 해직당시 생계가 막막해 지자 퇴직금으로 받은 7백여 만원의 돈을 '다림방'이라는 국수제인점에 모두 투자해서 지금은 부인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해직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민우회'라는 여성단체에서 일하던 부인은 민족극 '한마당'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아현동에서 부인이 연극연습 하느라 바쁠때 아이가 다른집 아들보다 우량아여서 보충수업을 마치고 아현동으로 가서 버스를 두번이나 바꿔타며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오던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5공화국에 접어들며서 폐지되었던 자율학습·보충수업이 84년이후 서서히 부활되고 이에따른 학생들의 비판 자살이 극심하게 늘어난 때에 그당시 대부분의 시민과, 학부모, 선생님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처부해 버리려는 경향이 지배적이 었다고 한다.

김영국 선생님은 87년 중3여학생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이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지금까지 교육의 일 주체로써 학생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있지는 않았었나하는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한다. '왜곡된 교육열', '교육을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 모리배들', '학력위주의 사회구조'등을 김영국 선생님은 이 사회 교육현실의 문제점으로 꼽는다.

"지금도 교복입고 지나가는 아이들은 한번 더보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김영국 선생님은 한달에 한번씩 '사제만남의 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89년 성심여고 3학년 국어교사로 재직하던중 해직의 고통을 맞게 되었지만 김영국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해직의 아픔을 견뎌야만 했었다.

처음에는 3학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것을 시작으로 요즘은 주로 1·2학년 아이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김영국 선생님은 "아이들의 가장 큰고민은 역시 짓눌린 입시에 대한 고민인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주로 현실사회의 모순등 수업시간에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달에도 아이들을 만났으며, 이번달에는 '남녀평등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성한 직업을 '노동자'라고 말하는 것에대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88년에 우리는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사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 한참문제가 되었던 육성회비 모금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으로 부터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법적구속력을 갖지못하는 협의회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교사들 사이에서는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직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배워서 남주는 교육을 할 수 있는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한편 전교조에서는 올해를 '해직교사 원상복직과 전교조 합법화의 원년'으로 잡고 지난 10일부터 전교조 인정과 교육대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입했다.

또한 WCOPT(세계 교원단체연합)와 IFFTU(국제자유교원 노조연맹)가 전교조 탄압과 해직교사 문제를 들어 지난달 13일 ILO(국제노동기구)에 낸 한국정부 제소가 'ILO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의해 공식접수 되었다. 따라서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전교조의 움직임이 바쁘며, 교사들의 합법화와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 요구관철에 대한 전망이 한층 밝다.

김영국 선생님은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입시위주 교육의 심화라고 지적하며,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력위주의 사회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교조에서는 교원기본권억압, 청소년문제 심화, 교육환경의 열악 등을 골자로 교육대개혁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이러한 교육대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뿐만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참여하고있어 그 어느해 보다도 교육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조경오(전교조 국제국장) 선생님은 "ILO의 한국정부제소, 교육대개혁과 원상복직에대한 서명운동 등의 성과를 5월31일9일) 열리는 '전교조 3주년기념 교육대개혁과 교사원상복직 및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로 그 열기를 모아낼 것"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전교조 합법화를 쟁취하고 원상복직을 이루어 낼것이다"라고 다짐한다.

'남한의 교육정책은 교육부장관이 바뀔때마다 한번씩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코 어떠한 이유에서든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하는 이유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교육이 이용되어 왔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다. 이러한 교육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학생·재야단체등에서 교육대개혁안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이것을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권동순 기자〉

"민주군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군부재자 투표 양심선언자 이지문씨를 만나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태양은 못보지만 태양이 뜨겁다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3월22일(일) '군부재자투표부정'에 대한 양심선언을 한 후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에 연행되어 국군기무사 요원들의 조사를 받았던 이지문(고대·정외87)씨의 말이다.

그는 9사단(일명 노사단)장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수지구 이탈'의 죄목으로 지난 2일(토) 중위에서 이등병으로 강등, 파면당하고 제용되었던 삼성에서 입사보류 상태에 놓여있다.

6주일간의 구금기간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고대·서강대 등 여러대학의 대동제에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하고 각 언론사의 취재요청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지문씨는 양심선언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자신은 민주투사가 아닌 이땅의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등병으로 강등된 느낌에 대해 이지문씨는 "양심을 버리고 별을 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지킨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양심선언을 하게된 결정적 계기에 대해 그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는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걸겠다고 말하시던 직속 중대장님이 대대의 압력과 기무사 요원들의 강압으로 눈물을 흘리며 1번을 꺾어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는게 그런 게 아니겠냐는 식의 체념과 회의가 들기도 했지만, 군이 진정한 민주군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 군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번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군의 정치중립'을 강조했다.

이지문씨는 이번 양심선언으로 수방사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기무사 요원들도 이번 일이 전사회적으로 문제시되자 육체적인 구타나 폭행은 하지못하고 '이제 사회적인 정치생명은 끝장난 줄 알아라'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한겨레신문 기자의 사주에 의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거짓 진술서를 강요했습니다"라며 거짓 진술서를 써준 것이 부끄러움으로 남는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4·19는 3·15부정선거를 자행한 자유당을 심판한지 30거 운동과 반민자당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다.

또한 "자본과 정권은 '현실은 이렇 수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진실을 은폐·조작하고 있지만 용기있는 양심에 의해 역사는 진전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부재자 투표부정을 폭로한 이지문 중위, 이원섭 일병의 양심선언에 대한 격려와 기무사 개입 배제등의 제도개혁으로 군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군대로 서기 위한 시작으로 '애국군인상' 제정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군을 불명예로 이끌었던 정치 군인들이 정치개입을 반대하고 올바른 민·군관계를 정립하며, 사회민주화와 조국통일의 선결과제인 군정민주화와 애국적 군인·전경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애국군인상 제정 추진위원회'의 발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류상준 기자〉

다시 살아나는 민들레처럼

가사의 눈

"10년동안이나 보지못한 오빠를 보고 싶어요." "인간다운 사회건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좌경폭력세력·빨갱이 라니요?"

지난 16일(토) 오후4시경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민중탄압 반민중적 대권공방 규탄과 민중대통령 추대를 위한 수도권지역 청년학생 결의대회'에서 안기부 장안동 분실에서 10여일동안 면회투쟁 전개도중 다친몸을 이끌며 연단에 오른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씨의 여동생 백해정양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사노맹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이다.

"지금 안기부 장안동 분실에 있는 구속자들은 10여일 동안 잠도 못자고 갖은 고문을 견디며 투쟁하고 있습니다"라며 백양은 또한번 연설도중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자 대회에 참석한 한여학생은 '불법수사—고문 자행하는 안기부를 해체하라'라고 부르짖어 백양의 눈물어린 호소에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또한 김밥을 팔기 위해 온 아주머니들까지도 그러한 호소에 접하자 장사를 잠시 멈추고 경청하며 안기부의 고문수사에 일굴을 찌푸리며 안스러워 했다.

인간다운 사회건설 요구를 갖은 정치적 악선동과 고문을 자행하며 체제유지의 도구로 이용되는 안기부등 각종 민중운동 탄압 기구들은 이제 구속자 가족들과 민가협 어머님들, 학생들이 하나되어 돌파 신발로 철문을 두드리고 출입자량이 드나들때마다 길을 막고 퍼어들어가는 민중들의 삶의 몸부림속에서 흘러녹아 사라져야 한다.

"내일 면회투쟁에서도 우리자식한테 너참 장하다." "에미는 너를 이해하고 용원할거야"라며 무너져 내리는 명든몸을 다시 치켜세우며 자식들의 진실되고 정당함을 믿는 구속자 어머님의 눈물어린 사랑에서 사노맹이 주장해온 '사회주의'는 더이상 탄압의 대상이 될수 없는 사상 표현·실천의 자유를 열원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몸부림임이 보여진다.

'사회주의'는 이제 국민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정치적대안으로 인정해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도 부응한다 하겠다.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공안탄압기구들은 즉각 해체 되어야 한다. 인기부·기무사 등 독재정권의 방패막이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땅의 악법들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민중들의 저항속에서 이제는 박물관 속에서나 볼수 있는 구시대적 유물로 남아야 할 것이다.

〈노재봉 기자〉

취업전문 재산 특강 취업 모집
신문·잡지·출판·언론·광고업계 취업
여름방학 이용 취업 100% 보장코스!
■ 변혁의 주체가 될 신세대 편집 지망자
언론·편집업계에 진출, 정상을 꿈꾸는 야망있는 젊은이로 글과 언어, 디자인과 컴퓨터에 매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세대.
■ 30년 경험으로 우뚝선 전산편집계의 1번지
본 연구원의 끈끈한 유대로 1,500여 회원사를 위주로 100% 취업. 완벽한 조직망 보유. 수료와 동시에 2년 이상 경력 인정으로 취업. (연수 중 임시 취업 알선)
■ PC를 이용한 DTP 전자출판 국내최초 연수 교육
PC로 입력한 데이타를 직접 출력하여 인쇄용지체로 눈문 및 각종 도서 출판 제작.(1인1대 컴퓨터, 소수정예로 개인지도)
●모집정원: 오전, 오후, 야간반 30명 정원제(선착순)
●입학자격: 전문대 이상, 대학3, 4학년생
●교육기간: 3개월 단기취업특강반 (92년 전반기 특강반)
●등록마감일: 1992년 5월 9일 마감 (마감 임박)
지방생은 온라인으로 등록예약 접수
• 국 민 은 행: 068-25-0002-498 (예금주, 차창옥)
• 농 협: 100060-51-030458 (예금주, 차창옥)
• 중소기업은행: 034-01-0132-923 (예금주, 차창옥)
(代)(02)263-8312~3,269-5256
서울·중구 을지로4가 315-1 무광빌딩412호.
에덴전산편집연구원
(부설) 국제 편집디자인 아카데미
자매사/월간 건강과 생명/반석출판사/에덴인쇄사/에덴전산사식센터/에덴 컴퓨그래픽

교 양 특 강 안 내

서울 캠퍼스 교양부주최로 '92학년도 제1학기 교양특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1992년 5월 26일(화) 09시 30분
2. 장 소:대학원 6210호 강의실
3. 대 상:본교 재학생
4. 연 사:서경석 목사(경실련 사무총장)
5. 연 제:"한국사회현실과 시민운동"

교 무 처 교 양 부

학 군 사 관 후 보 생 모 집
(R. O. T. C)
○모집인원:○○명
○지원자역
—'92년도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71.1.1—74.3.1출생자(18세—22세 미만)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92.4.20—5.20(학군단 본부)
—구비서류

지원서접수시	신체검사시
•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 대학입학 및 1학년 성적 증명서1부 • 사진(4×5CM) ……2매	•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각2부 • 사진(4×5CM) ……2매

○선발: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합격자 발표:'92. 12. 3
○특전
—무시험 선발
—소위임관, 중위전역, 또는 복무연장, 장기복무
—의무복무기간:2년 3개월(장교중 최단기)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학군출신 장교 우대선발 및 취우
○문의처:학군단 본부(962—7124 961—4412)
제 119학 생 군 사 교 육 단 장

보도기획

진보 학문 연구위한 교과개혁이 당면과제

Ⅰ. 들어가며

본교는 대학의 3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연구, 사회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88년 당시 문교부의 국책교과과목의 운영을 대학자율에 일임한 것과 관련, 89년 8월17일 '교과과정개편 연구위원회'의 연구를 통한 교과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외국어를 주요학습대상으로 하는 만큼 언어를 통한 각 해당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지역학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상정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언어계열 학과의 학업진작에 도움을 주고 상호보완작용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오는 비민주성과 반자주성은 93년 교과과정개편을 앞두고 학생들의 참여부분을 강력히 먼저 교과과정의 질적 우월성은 그 대학의 교육의 질적 우월성과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는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본교의 경우는 이러한 논의의 진행이 교수집단에 국한되어 있어 민주적인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전공교육의 과도한 전문화추세로 상대적으로 교양교육의 경시를 불러 왔으며, 진보적인 교과목 선택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급변하는 사회와 지식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됐으며, 교수·학생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교과과정 연구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

현재 본교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 아래 교과과정 상임연구원(1명)과 교과과정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87년 용인캠퍼스에 '교육개선위원회'를 설치, 직제·학제개편 및 교육환경 개선, 지역학을 도입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내 제반기구들은 모두 교수집단에 의해서 꾸려진 논의기구들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교수집단간의 학문적 배경(예컨데 학위취득국가의 다름)에 대한 타성적 아집으로 교과과정 개혁이 교수집단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악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교과개편 기구의 문제점으로서 제기되는 것으로는 이러한 기구들이 본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이를 위해 수행해 오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교의 90년 '자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데서 잘 나타나 있다.

이의 개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보다도 '지역학'의 도입이 시급하다. 88년 당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교수(79.4%), 학생(77.3%) 모두가 서울·용인캠퍼스 중복학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설과목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어학계열의 경우 시대적 요청에 의거한 만큼 교수·학생간의 조속한 논의가 요청된다.

이와 함께 어학계열의 경우 현행 교과과정이 과목간의 연계나 계열성이 무시된 채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예; 언어실습과 회화, 강독과 작문)

3. 교양과목의 현황

현재 본교는 90년 당시 교양필수에서 1백35개 강좌, 교양의 이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전공에 있어서의 보다 심화된 전문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현시기에 원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마련이 시급하다.

교양의 경우에 있어서도 88년 국책과목폐지 이후 대학자율에 맡겨진 국민윤리, 한국사강의에 있어서 진보적인 학문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반철학영역과 문화시에 초점을 두고 개설되는 이들 과목들은 시대적 요청인 자주, 민주, 민족통일에 부응할 수 없다.

또한 1952년 제정공포된 교육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일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이라는 법조항상의 교양과목에 대한 규정도 결국 진보적 학문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반자주성에 기인된 것임을 다시한번 깨닫

교육과정 자주화, 민주화는 교·학 회의로 부터

진보학문 제약하는 '교육법'악요소 철폐 투쟁도 병행

제기하게 되는 요인이 됐다. 이는 본교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상정하면서 장기발전목표로서 제시한 바 있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균형발전 △한국대학교육의 충실 △세계수준의 명문대학 건설로 이르기에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진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본교의 교육실태와 관련하여 자주적, 민주적 교육과정 창출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 현행문제점을 되짚어 보도록 한다.

Ⅱ. 본교 교육과정의 현황

1.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운영체계 점검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은 의위원(각 단대 학장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요 수행업무로서 △교과목 개설에 대한 적합성 검토 △교과목 변동에 따른 학생들의 수강에 관련된 문제점 검토 △학점 정정에 필요한 원칙과 규정에 따른 심의 △교양과정의 교과목 개설 및 폐강에 관한 심의 △교양과정의 강사초빙에 관한 심의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기본 방향 설정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 개편을 필도의 '교과과정개편위원회'를 구성, 개편작업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90년 '교양과정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본교의 교양과정에 관한 제반 운영과 개편에 관한 논의의 논의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단과대·학과별 교과과정 심의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대학당국은 이의 구성에 있어서 학생들은 건의의 수준에 머물러야 함을 역설하는 등 교육과정 전반에 있어 비교육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 전공과목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제의

88년 9월에 작성된 '학사개선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공의 경우 필수과목은 줄이고 선택과목을 넓히자는 외견이 학생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전공과목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강력히 호소한 바 있다. 이는 결국 1, 2학년충이 과중하게 전공필수과목만의 학습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시정되어야 함을 나타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에 본교는 90년 교과개편시 기초계열과목을 교양과목에서 전공과목 이수로 변화시켜 전공의 다양화를 꾀하였지만 이 또한 개설과목의 부족으로 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동양어계열의 경우 전공과정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가망성이 희박하선택에서 1백70개 강좌, 교양영어 및 제2외국어에서 1백59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부전공 개설과목까지 합산하면 교양과정은 총 8백38개 강좌이며 이중 72.8%(부전공 제외)에 해당하는 약 3백70개의 강좌를 외래 시간 강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전공과목은 총 강좌수 1천4백72개 중 25.3%(3백73개)만이 외래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교양과목에 대한 투실의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용인캠퍼스의 경우는 교통상의 이려움 등을 들어 3시간 연속강의의 비효율성을 아직까지도 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개설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 미비와 개설, 폐강에 따른 공개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아 학기말 수강신청을 하는 본교의 경우 학생들의 수강에 상당한 난점을 주고 있다.

Ⅲ. 맺으며

결국 교육과정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서는 교수, 학생간의 회의체계의 구성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대학내에 만연되어 있는 봉건적인 '교권'우월주의는 학생들의 의사수렴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대학노련은 전국 1백여개 이상의 대학 직원노조로 구성, 조합원 총수가 1만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현시기 대학행정 제반모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철폐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노련의 움직임은 산하 직원노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노련 산하 직원노조들 중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대학노조로는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교수·학생들이 '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원3주체가 공동보조하는 조선대노조, 그리고 전국대학에서 최초로 총장선출에 민주적 참여를 실현한 세종대, 일부 학생들에 대한 감시도구로 악용됐던 학생신상카드를 자체 소각한 경희대 등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타대학 노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본교 직원노조는 한 참여문제, 재단에 종속되어 있던 행정의 독립성 확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특히 용원직 하위직 직원들에게)제도 개선문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임금제 철폐 등 앞으로 직원노조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학내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집결해내고 힘있는 직원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그 운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조합원 모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내실있게 담보되어야만 직원노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합원 간부들의 독선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대학당국의 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단결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재봉기자〉

■학자 위한 소기구 점검.〈직원 노동조합〉

대학자치 실현을 위한 학원 일주치

본교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은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 대학자치 실현,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학원공동체 건설, 사용주에 대한 임여가치의 지양이라는 계급적 요구에서 출발했다.

지난 87년 6월항쟁의 민주화물결은 대학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도 대학내에 노조를 설립하고 '직원을 학원의 일주체로써 인정하라'는 직원들의 욕구는 87년 10월21일 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직원노조를 설립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

이와 함께 지난 88년 3월에 결성된 '대학노동조합 연합'(이하 대학노련)과의 공동연대를 통한 대학의 자주권, 민주권 수호와 제도적 공간확보 투쟁은 전반적인 대학행정체계의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학내 각주체인 교수·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울·용인캠퍼스의 학생의 학사행정참여에 발맞춰, 직원들의 참여부분도 적극적으로 제기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바탕 위에서 본교 직원노조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설정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의 한 구성원이면서도 철저히 대학당국에 의해 소외당해왔던 대학운영권에 대한 참여문제, 재단에 종속되어 있던 행정의 독립성 확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특히 용원직 하위직 직원들에게)제도 개선문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임금제 철폐 등 앞으로 직원노조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학내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집결해내고 힘있는 직원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그 운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조합원 모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내실있게 담보되어야만 직원노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합원 간부들의 독선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대학당국의 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단결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재봉기자〉

대학 운영 참여와 재단 종속 탈피 통해 자치위상 정립 해야

이렇게 출발한 직원노조는 올해 4대째를 맞아 합법적 지위를 통한 조직의 확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이용한 학사행정참여·근로복지개선 등 민주적 대학행정체계 건설과 노조원 결속 및 의식강화를 통해 노조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직원노조의 발전 전망은 무엇 보다도 제반모순척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자주권 확보와 대학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주어진 물리력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의 의식변화에 주역점을 두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직원노조가 대학당국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과 대학행정 운영의 주체라는 계급적 자각이 부족하였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직원노조의 활동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노조원의 개속적인 탈퇴현상은 대학당국, 재단과의 제도개선투쟁에 있어 자기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올해 직원노조는 유니온-샵 제도를 대학당국과의 단체협상에서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8년 3월에 결성된 '대학노동조합 연합'(이하 대학노련)과의 공동연대를 통한 대학의 자주권, 민주권 수호와 제도적 공간확보 투쟁은 전반적인 대학행정체계의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학내 각주체인 교수·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울·용인캠퍼스의 학생의 학사행정참여에 발맞춰, 직원들의 참여부분도 적극적으로 제기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바탕 위에서 본교 직원노조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설정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의 한 구성원이면서도 철저히 대학당국에 의해 소외당해왔던 대학운영권에 대한 참여문제, 재단에 종속되어 있던 행정의 독립성 확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특히 용원직 하위직 직원들에게)제도 개선문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임금제 철폐 등 앞으로 직원노조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학내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집결해내고 힘있는 직원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그 운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조합원 모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내실있게 담보되어야만 직원노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합원 간부들의 독선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대학당국의 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단결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부〉

글싣는 차례

1.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주화
2. 본교 교육과정의 현황과 이후 개편 방향
3. 강의 평가제
4. 강의 계획서 작성과 특강

아비 없는 자식(?)

○…빛고을 민중항쟁의 의지가 더욱 계승발전되는 요즘, 못 어리석은 집권자들이 옛날 일로 떠들면 안된다면 민초들의 분노를 막으려 몸부림치고 있다는데.

사실인즉, 광주 5·18기념집회는 허락하겠다더니 현 집권당의 규탄 국민대회는 절대불가라며 양면성을 보인 것.

아비 없는 자식 없듯이 오늘날 민초들의 분노는 그대들 가슴이 남아 있는 한 계속될 것 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할 터.

○…파업이 할퀴고 지나간 흡산들의 배움터엔 쓰레기만 나부껴.

직원노조파업이 보름을 넘기며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흡산들의 불편은 더해만 가고 노조양반들 똘똘뭉쳐 재단측에 정중히 협상을 요구하자 겉에 걸린 재단나으리들 특기인 '귀막고 눈가리기'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민측을 샀다고.

흡산들 지지서명이 잇따르면서 노조양반들과 손을 맞잡은 지금, 재단나으리들은 맞고 협상할래요, 그냥 할래요.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칭 정×영의 시대 부응(?)의 국민당이 한창 잘나가고 있다는데.

사연인즉 정치활동금지 노동조합법, 제3자 개입금지 쟁의조정법등의 노조와해 책동으로 노동자를 구속·해고시킨 현대의 사생아 국민당에서 대권을 잡으면 짱등세상 만들겠다는 허튼소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

'제빌공화국'만들어 경제파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책동은 민중단결 투쟁이 심판할 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구호가 계급의 벽을 뛰어넘었다고…

무식한 자본가들이 지난 15일 경영자총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법제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기로 한것이 그실상.

노동자의 구호가 논리적이라도 앞뒤도 모른채 무작정 따라하는 아저씨들! 제가 그 뒤를 가르쳐드릴께요. "자본가여 굶어 죽어라!"

○…인공기 사건으로 각 대학 총장님들이 아연긴장해 밀실회담을 열었다는데.

내용인즉, 각 대학별 대동제 기간에 남북고위급 회담 등 통일무드를 타고 태극기, 인공기, 남북단일기 등이 나란히 게양되었다는데 이것을 국보법상 북한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고 법석들이라고.

함의서가 채택되는 이마당에 시대에 뒤처진 총장님들, 통일조국에는 어찌살려고 하시는지.

걸림돌

비둘기칠판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동지들에 대한 재판있습니다

때:5월 21일(목) 오전10시
곳:서초법원 513호
이성북군(대학원 중남미지역학과), 오인환양(동덕여대 아동3)의 재판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법정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힘을 줍시다.
연락처:961-4555

〈I·S공대위〉

이문벌

■중국어과 과회지 발간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합니다

때:5월 20일(수) 하루종일
곳:깡통
아무조록 많이 와 주세요.

〈중국어과〉

■초청강연회

때:5월 21일(목) 늦은 3시
곳:6105
주제:탈냉전이후 한반도 통일의 문제점
연사:김남중

〈모의국제연합〉

■제13회 FBS가요제 일정

예선-때:5월 23일(토) 늦은1시
곳:6104
원서및 악보2매 지참하고 오세요
본선-때:6월 2일(화) 늦은6시
곳:노천극장

〈FBS〉

■'92 통일노래한마당에 참가합시다

5월 24일(일)까지 참가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외대인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청년학생들의 삶속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이야기들을 주제로 한 노래면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학보2매와 참가신청서를 갖춰서 총학생회문화국으로 달려오세요. 참, 행사는 6월4일(수) 노천극장에서 열려요.

〈제26대승리하는 총학생회〉

■"5월 학술주간"이 열립니다

때:5월 20일(수)~22일(금) 늦은5시
곳:언제나 6104
내용:20일(수):국가보안법에 대해 알아봅시다(강연회)
21일(목):언론과 매스컴이 주는 영향과 그 대처방안(강연회)
22일(금):현실 학회문제의 진단과 모색(공개토론회)

〈우리사랑동양어대〉

왕산골

■과총회 합시다

때:5월 20일(수) 늦은 5시30분
곳:어문관 1206

〈아프리어과〉

■설레이는 동남아여행준비위한 정기총회있어요

때:5월 20일(수) 늦은 5시30분

〈유스호스텔〉

■이젠 모꼬지 갈때가됐죠?

때:5월 23일(토)·24일(일)
곳:대성리

〈P·T·P〉

동문회

안양
때:5월24일(일) 늦은5시30분
곳:안양 joint앞 이후랜 올벼
오래간만에 이문·왕산이 한자리에서 모임시다.

(이문) 대구 심인
때:5월 22일 늦은5시
곳:깡통

홍익
때:5월20일(수) 늦은5시
곳:깡통

(왕산) 이대부고
때:5월 25일(월) 늦은3시
곳:학생회관 가건물

성보
때:5월 22일(금) 늦은5시30분
곳:학생회관 식당

전주 연합동문회
때:5월20일(수) 늦은5시30분
곳:학생회관식당

명지·명지여고
때:5월27일(수)늦은 5시반
곳:학생회관 식당

광고신청: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212호)

재단, 단체교섭권 총장에 공식 위임

18일 노사 본격협상으로 27개항 가합의

이 강 혁총장 귀하

현재 대학에서 진행중인 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중전과 같이 대학에서 권한을 갖고 계속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 5. 13

이사장 이 숙 경

어제(18일) 본교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 단체교섭위원들과 대학당국 교섭위원인 용인캠퍼스 부총장 이창복(독일어과)교수와의 새벽 2시까지의 협상에서, 대학당국이 단체협약(안) 51개 쟁점사안 중 27개 사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직원노조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직원노조는 대학당국과의 단체협상과정에서 교섭권을 총장이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교직원의 임면권이 총장에서 재단이사장으로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총장의 권한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본교의 경우는 정관 제31조 2항, 43조 2항 등에 교직원 임면권은 재단이사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대학당국과 직원노조 단체협상의 가장 큰 난점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직원노조는 13일(수) 노동부에 법적 협약체결 권자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게 됐으며, 당일 본교 재단인 동원육영회 이숙경 이사장으로부터 단체교섭에 대한 위임장이 총장앞으로 전해져 교섭진행이 급속도로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위 참조)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은 사안은 인사부문의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재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24개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동안 직원노조가 파업을 진행해 오면서 대학당국에서 요구했던 조합원의 인사·경영 참여부문과 유니온—샵의 제도화 부문이 타결되지 않아 파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조, 부당노동행위 적발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

본교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대체근무자에 대한 직원노조측의 적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화) 서울캠퍼스 시청각교육과장 최창운씨와 비조합원 정해은, 이송근씨 등 3명이 시청각건물의 청소 도중 사범대 학생들의 제보를 접한 직원노조측의 사실여부 확인과 정에서 최창운씨가 이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춘, 용인캠퍼스 총무처 관리출입)는 13일(수) 다시 시청각건물 3층 기계실로 항의방문하여 비조합원 정해은, 이송근씨에게 청소를 하게 된 경위와 지시자에 대해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이송근씨는 "직용범위 등은 잘 모르지만 과업시 부당노동 행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과장의 지시라 어쩔수 없었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12일 서울캠퍼스 본관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던 본교 대학원 독일어과 박사과정 재학중인 정민영, 같은 과 조교 윤종식 등 2명이 직원노조원에 적발되어 한차례 소동을 빚기도 했다. 특히 두사람 모두 독일어과 입을 들어 직원노조측은 "용인캠퍼스 부총장(이창복 교수), 서울캠퍼스 총무처장(송윤덕 교수), 총무과장(이광구 씨)등이 모두 독일어과 동문들이므로 청소지시를 하달한 것이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사람 모두 자발적 행동이였다며 이를 극구 부인했다.

전교조 성남지회 주최 '닫힌 교문…'학내 상영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문화선전국이 주관하고 전교조 성남지회가 주최한 16일리 소형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제작 장산곶매)가 지난 14일(목) 자연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2회 공연을 가졌다.

이날 학내 상영에 대해 용인 경찰서측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영화"라며 필름을 압수하겠다고 학생처에 전화통지를 했었으나, 경찰의 학내진입은 없었다.

5·18 광주민중항쟁 12돌을 맞아 '5·18 영령추모 및 성지순례'를 위한 전국 24개 대학 3천여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을 찾은 가운데 본교 서울·용인캠퍼스도 '광주순례단'을 구성, 15일(금)·16(토) 각각 광주로 향했다.

서울캠퍼스는 총학생회와 법대학생회에서 지난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법대건물과 븕은광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데 이어, 16일 오전11시 약1백50여명의 학생들이 본교를 출발하여 광주에 도착, 전남대에서 일박한 뒤 17일(일) 망월동 5·18묘역을 찾아 당시 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용인캠퍼스도 14일(목)까지 신청서를 접수, 약1백여명의 학생들이 15일 지입제버스를 이용하여 광주 성지순례 및 5·18묘역 참배행사를 가졌다. (독자사진;허행진(사범·한교3))

용인, 25일 대동제 개최 확정

자주·민주·통일 주제…행사 예년과 비슷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를 '왕산대동제'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각종 선전물 제작 및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전반적인 5월 정세를 고려하여 학내 통일부재를 고양시키고, 29일(금) 한양대에서 열릴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을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양심수 석방 등을 중점적으로 선전하게 되며 각 날짜별 마다 자주·민주·통일이라는 큰 주제로 치뤄지게 된다.

25일 '자주의 날'은 자주학원 건설과 자주적 학생회 강화를 목적으로 주요행사를 진행하며, 대동제 개막식 및 각 단대, 동아리 행사를 갖는다. 26일 '민주의 날'에는 민주정부 수립 의지와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행사내용을 꾸리게 되며, 27일 '통일의 날'에는 조국통일의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선전과 함께 대동제 폐막식 및 학과 노래 경연대회, 학과 깃발 모자이크 만들기, 학과 맞춤옷 선보이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또한 왕산대동 한마당에서는 학생, 교수, 직원, 모현주민이 다함께 할 수 있는 노래공연 및 통일 대동놀이가 열린다.

행사기간 중 상시행사로는 단체줄넘기, 통일놀이, 각종 전시회 등이 개최되며, 학내 주점의 설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함께 각 단대행사를 학생회관 중심으로 일도록 하여 대동제의 흥을 돋구도록 한다.

총학생회는 특히 주점과 학내 수익행사의 경우는 되도록 이면 대의적인 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우선설치순위를 주는 등 수익금이 봉사활동비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진영, 16일 집회 가져

사노맹 관련 안기부 발표 반박

지난 5월16일(토) 오후3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노동자·학생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탄압 반민중적 대권공방규탄과 민중대통령 추대를 위한 수도권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용인·성남지역, 서울지역 등 수도권 각지역 학생들의 사전 집회 개최 이후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 민중진영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민중권력의 창출이라는 대의를 설정, 공유하고 사회주의 이념의 대중화를 제기하였다.

대회 첫순서로 나온 오세철 민중회의추진위원장은 내빈소개 및 인사말에서 "지금은 남한사회변혁을 위한 총체적 전략을 구상, 공유하고 변혁운동 진영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이를 통해 대선이나 그 이후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29일(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하 사노맹) 조직사건과 관련해 구속자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기부 장안동 분실앞에서 면회요청을 전개하고 있는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필명 이정로)씨의 여동생 백혜경양이 참석하여 "현정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등사회 건설을 요구하는 이들을 불순폭력세력·빨갱이라는 등 정치적 악선전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사회주의는 대중들이 선택할 정치사상의 대안일뿐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안기부 수사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집회후 이날 참가했던 2천여명의 학생들은 오후6시경부터 종로3가와 명동 등지에서 사노맹·전민학련 탄압 중지와 정치사상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2시간가량 선전전을 가졌다.

교육 방송국, 가요제애정 서울 4일, 용인 28일 본선

서울캠퍼스 교육방송국(FBS)에서는 제13회 FBS가요제의 제목을 '우리의 삶, 우리의 고민, 우리의 노래'로 확정하고 오는 22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참가희망자는 창작악보2매와 본인도장을 지참해 사범대학 3층 외대교육방송국에서 신청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예선은 23일(토) 대학원소강당(6104)에서 열리며, 본선은 6월2일(화) 노천극장에서 치뤄질 예정이다.

용인캠퍼스 교육방송국도 지난 15일(금) '제8회 FBS가요제'예선전을 가진데 이어 오는 28일(목) 자연대 대강당에서 본선대회를 갖는다.

교직원 동정

◎무역학과 원종근교수, 과발전기금 마련위해 모금운동 전개

무역학과 학과장 원종근 교수는 본교 동문들을 대상으로 무역학과 발전기금 1억원 마련을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과움직임

◎서울 중국어과, 25일 '중·일전' 개최

서울캠퍼스 중국어과에서는 일본어과와 함께 우유·마시기·계란던지기·죽구대회 등의 행사를 갖는 '중·일전'을 오는 25일(월) 오후3시 노천극장에서 실시한다.

◎서울·용인 독일어과, 21일 연합체육대회 개최

서울·용인캠퍼스 독일어과, 독일어 교육과는 양캠퍼스 단결을 위한 체육대회를 오는 21일(목) 오전10시 부터 대운동장과 노천극장 등지에서 갖는다.

동아리 소식

◎서울 미술반, 23일까지 '봄미전' 개최

서울캠퍼스 미술반 '그림촌'에서는 '제40회 봄맞이 정기미술전시회'를 어제(18일)부터 23일(금)까지 6일 동안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용인 미술반 '하얀공간', 25일부터 미전개최

용인캠퍼스 미술반 '하얀공간'에서는 오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미술전시회를 갖는다.

통일 노래 한마당 24일까지 원서접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산하 문화국에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해온 '통일노래한마당'을 올해에는 6월4일(목) 열기로 확정하고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순수창작 민중가요를 대상으로하는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본교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4일(일)까지 악보 및 소정의 신청서를 총학생회 문화국에 제출하면 된다.

자연대, '스승의날'맞아 교수참여 체육행사 가져

용인캠퍼스 자연과학대 소속 7개학과는 지난 14일(목)·15일(금) 대운동장에서 8개 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 전산학과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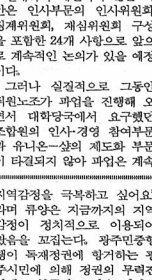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특히 스승의 날을 맞아 교수·학생간의 공동경기 진행을 가져, 행사개최의 의미를 한층 높이기도 했다.

이사람

"제가 살고있는 이땅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많은 충격이었어요."

5·18광주민중항쟁 12주기를 맞아 광주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서울캠퍼스 류경조(동양·중국어 1)양의 말이다. 이번 광주성지순례는 대학에 갓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교육으로 오도되고 있는 광주의 실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며, 현 한국사회의 일록진 현대사를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재인식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저희 집안은 경상도가 고향이어서 전라도 특히 광주지역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고 구시대의 유물인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싶어요"라며 류양은 지금까지의 지역감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꼬집는다. 광주민중항쟁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광주시민에 의해 정권의 무력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



를 내면서도 끈기있게 전행되었음은 대학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류양은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받은 교육에 대해, 특히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되요"라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뒷부분에 나오는 현대사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며 극구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든 현정권의 부도덕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밝힌다.

"광주항쟁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배상 또한 이뤄져야 합니다"

〈광주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서울캠퍼스 류경조 양을 만나〉

이번 광주성지순례에서는 서울·용인캠퍼스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지난해 6·3사건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원일(법·법학3 제적)의 면회를 했다. "대학에 들어와서 직접 6·3을 겪었던 사람들을 직접 접하게 되면서 내가 들어왔던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라고 그간에 다소간 편향된 시각을 가졌던 것에 대해 말한다.

5월의 광주는 항상 투쟁의 힘찬 열기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 대한 추모의 엄숙함이 교차한다.

광주민중항쟁은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으나 아직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문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늦은감이 있는 부분이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묘지를 방문했을 때, 특히 나 어린 중학생의 비석이 눈에 들어왔을 땐 가슴이 쟁했어요."라며 "이러한 수많은 희생자를 낸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실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배상문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말을 맺는다. 〈권동순 기자〉

1992학년도 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공고

대 학 원(☎ 961—4104, 962—7117)

1. 모집과정 및 학과.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5개계열 37개학과);각 학과 약간명
어문학계: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서반아어. 아랍어. 이태리어. 힌디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국어국문학. 언어학. 동유럽어문학과(신설)
지역학계:아주. 중남미. 중동. 동구. 북미. 아프리카. 서구지역연구학과
사회과학계:정치외교. 행정. 법학. 신문방송. 무역. 경제. 경영. 경영정보학과
인문과학계:철학. 사학과
이 학 계:수학. 물리학. 화학. 전자계산학과
나. 박사학위과정(4개계열 23개학과);각 학과 약간명
어학학계: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노어. 국어국문. 언어학과
사회과학계:국제관계연구. 경제. 법학. 경영. 정치외교. 행정 신문방송. 무역. 경영정보학과
인문과학계:철학과
이 학 계:물리학. 화학. 수학과
2. 원서교부;1992년 5월 26일(화)부터 6월 11일(목)까지
3. 원서접수;1992년 6월 8일(월)부터 6월 11일(목) 17시까지
4. 전형일시;1992년 6월 19일(금) 오전10시부터
5. 전형방법;필답 및 구술시험
가. 석사과정;1)전공, 2)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구술시험
나. 박사과정;1)전공, 2)영어, 3)제2외국어, 4)구술시험

무 역 대 학 원(야간) (☎ 961—4109, 962—7118)

1. 모집과정: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명
2. 모집학과:
가. 경영학석사;무역학. 국제경영학. 해운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과
나. 경제학석사;국제경제학. 국제지역연구학과
3.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1)논문, 2)외국어, 3)면접
나. 연구과정;1)서류전형, 2)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1992년 6월 1일(월)부터 6월 23일(화)까지
5. 시험일시:1992년 6월 27일(토) 오후 2시부터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 지급함.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무사시험에 특전있음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을 특별우대함.

교 육 대 학 원(야간) (☎ 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인원:석사학위과정 ○○명
2. 전공분야
어문계: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일본어교육. 서반아어교육
인문사회계:역사교육. 윤리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철학교육
실업계:상업교육. 전자계산교육
3. 시험과목:1)필답시험(전공), 2)면접
4. 원서교부
1992년 6월 1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
5. 원서접수
1992년 6월 8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
6. 시험일자
1992년 6월 20일(토) 오후 2시
*현직교사는 수업료의 25%를 학비감면함.
*재학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함.
*초·중등학교 현직교사, 교감, 교장 및 장학사, 연구사, 교육행정직 5급 이상의 직급에 재직중인 자는 입학시험을 거친 후 특별 전형할 수 있음.

*제출서류(각 대학원 공통)
①입학원서(각 대학원 소정 양식, 명함판사진 5매 부착)
②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수여 및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각 1통)
*무역,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취득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 바람
주소: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철1호선 휘경역(외대앞)하차〉

韓國外國語大學校

◇ 직원노조 파업일기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본교 직원노조 전면파업이 오늘로 1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지럽게 수북히 쌓인 쓰레기더미들을 보며 그동안 직원 아저씨·아주머니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본보에서는 직원노조 조합원들이 파업기간에 쓴 일기 몇 편을 발췌하여 싣습니다. 대학의 주체로 당당히 서고자 하는 이들의 외침에 귀기울여 보고, 외대인 모두가 직원노조의 파업투쟁에 관심을 가져 파업이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편집자〉

5월 1일 금요일 맑음

오늘부터 노동조합은 '92단체협약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조합의 간부들이 철야농성을 해가며 학교측과 협약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결국은 5월1일, 세계노동절 103주년을 기하여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출근과 동시에 본관 108호 농성장으로 조합원들이 모여 들었다. 단결! 투쟁! 힘찬구호와 노래들이 신선한 충격을 준다. 우리들의 파업복인 빨간조끼를 입고 노란머리띠를 머리에 묶은 모습들이 새롭다. 학교측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다. 파업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한 학교가, 본관을 날려 비릴 듯한 함성에 당황하고 있다.

"흩어지면 죽는다
흩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

오후에는 노천극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총액임금제 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늘상 학생들의 집회현장에서 구경꾼으로 있었는데 오늘은 그들과 연합하여 힘찬 노학연대 투쟁을 가졌다. 새삼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하였다. 노동자의 식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나는 대학노동자로서 올곧은 행동을 했는지 많은 것을 깨달게 하는 하루이다.

5월 6일 수요일 비

용인캠퍼스로 파업투쟁 원정을 갔다. 5월의 신록을 자랑하는 용인캠퍼스 전경이 봄비에 젖어 무겁고 우울하다. 명수당 연못에 굵은 빗방울이 어지러운 파문을 일으킨다. 그것은 우리들의 가슴에 단체교섭 결렬 '전면파업'의 파국으로 출렁인다.

"학교측은 즉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재단은 예산을 공개하고 전임금을 대폭 확충하라."

"교수, 학생, 직원 똘똘 뭉쳐 학원자주 이룩하자."

넓은 캠퍼스에 우리들의 외침이 비에 젖어 묻혀 버린다. 용인캠퍼스 구석구석에 '전면파업'벽보를 부착하고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알렸다. "왕산골 산신령님이시여, 우리들을 굽이 살피시어 크게 도와주옵소서"빌어 본다.

5월 9일 월요일

단체교섭 출정식. 출정기를 힘차게 합창한 후 귀빈식당으로 갔다. 14시 15분 노조측 학교측 단체교섭위원들이 전원 입장한 후 조합측에서 준비한 식순에 의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다음 애국가를 제창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학교측의 대표위원 용인캠퍼스 부총장인 이창복교수께서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쓸데 없는 시간낭비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학교측의 교섭위원들은 앉아 버렸다. 용원직급의 교섭위원인 나는 참으로 이해하기 괴란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교섭진행 첫째날 대학교수께서 애국가가 쓸 데 없다 말을 하다니!

노조의 우리 위원들만 애국가를 제창했다.

상견례를 한 다음 노동조합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단체교섭의 이미 합의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자 이창복 대표위원의 인사말은 이러하였다. "죄잠하다. 한국노동자의 역사가 짧은데 앞으로 단체협의 과정에서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며 원만, 원숙된 회의진행이 꼭 필요하다. 노사이념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특정 이익을 추구한다면 곤란하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공통된 노력이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이해를 포기 할 줄 알고 하나의 이해를 줄 줄 알아야 하겠다. 과거의 노시합의 과정은 미숙했었다. 상호 쌍방이 불신·불화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서로 자제하며 인내 이해하고 이제는 원숙한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이다." 쌍방이 교섭과정에서 상호 노력하고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대표위원 인사말을 마쳤다. 말로만 상호 존중과 사랑을 강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공식적인 단체교섭이 시작되었는데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교의 부총장께서 통일 독일에 가서서 도대체 무얼 배워 오셨는지? 청소부인 나는 갑갑했었다. 혼잣말—존경하는 대표위원님 포커스를 잘 맞추셔요. 코메디가 아닙니다.

5월 11일 월요일

새 날을 맞고 교문에 들어서면 힘찬 노래소리와 빨간조끼의 동지들을 만나게 된다. 미안하다. 내것이 아닌놈, 외침의 구호도, 동지라는 단어도 자신을 왜곡하게 자극하던 것이, 이제는 하루에도 몇차례씩 머리띠를 고쳐 매곤한다. 새로운 각오로 의지로 단결로! 투쟁으로! 나에게 투쟁의 길로 나서라 한다.

내 삶은 온통 영망이다. 화장실의 쓰레기는 어느 가을 깊은 날 치악산의 단풍처럼 쌓여만 가고 잘 잠겨지지 않는 수도꼭지는 계곡인 양 하염없이 분노의 눈물을 쏟으며 우리들의 일손을 기다린다. 마음이 아프다. 매일 교정에서 마주하는 교수님,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 것을 찾으려 우리의 이웃들에게 고통을 참으라 한다. 서로 신뢰하면서 희망을 가져야 할텐데….

5월 17일 일요일 밤

'감갑한 마음'

전면파업 17일 어느 학생에게서 들은 말이다. 나도 답답한 마음이고 나에게 말하는 학생도 답답한 심정에서 한 말인 듯하다. 요즘 교섭의 환경이 영망이고 쓰레기는 쌓이고 방송은 시끄럽고 짜증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 중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다. 학생들이 교내 방송에 대하여 짜증을 내고 있고 계속 이런 일들(파업)이 진행된다면 학생회의 올곧임으로 보아 학교의 환경부분을 가지고 입장표명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원직급의 교섭위원인 나의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한 일이다. 누가 어느 사람이 파업을 하고 싶어 하겠는가! 우리 노동조합 지도부의 입장은 학생이 얘기한 그런 일들이 정말로 난해한 부분이고 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스럽고, 학내 구성원 전체에게 전면파업 중이라도 학내 구성원들의 피해를 극소화 시키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문제가 어렵고 어렵다는 얘기를 해 주었다.

학교측에서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풀어 주면 학내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 난지도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화장실은 넘치고 강의실도도 말씀이 아니고, 교수 학생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런 날을 손꼽아 보면서 이제는 내일의 개척을 위해 자야겠다.

〈직원 노동조합
조합원 일기 중에서〉

작·은·이·야·기

5월을 가르쳐준 소녀

드디어 92년 3월5일 개강날이다. 오늘 그 애를 볼 수 있을까? 어제 이런 설레임으로 한숨도 못 잤다. 작년 3수끝에 간신히 들어온 대학의 첫 만남이었던 오리엔테이션때 보았던 하얀 얼굴에 아담한 키, 쌍꺼풀 없는 맑은 눈,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점심먹을 때의 조그만 손으로 조심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이었다. 3수를 하며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학교 이후 여자와는 말도 거의 안해본 나에게 그녀의 모습은 나를 사로잡기에는 충분했다. 그 당시에 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 '신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6방'이었기에 그녀와의 만남을 1년후로 미룬채 말도 한번 못 건네고 입대했었다.

지금은 2학년이 되었을 그녀의 모습을 그리며 학교로 향했다. 그런데 이건 웬걸, 3일이 지나도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일설에 의하면 수업만 듣고 바로 학교를 빠져 나가고, 말도 없이 행방이 안좋게 들렸다. 게다가 학번은 같지만 학년이 틀려 더욱 보기 힘들었다.

개강한 지 2주가 흘러서야 그녀를 식당에서 처음 볼 수 있었다. 자존심이 강한 것이나의 단점이었지만, 그녀에겐 이상한 용기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인사 좀 하죠. 같은 91학번이고 이번에 소집해제되어 1학년에 복학한 이진우라고 합니다. 점심값이 떨어요." 이런 나의 말에 놀란 눈으로 잠깐 쳐다 보더니,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 버렸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고 한편으로는 이상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후 그녀는 볼때마다 어두운 얼굴로 바닥을 주시하며 지나가는 모습뿐이었다. 도저히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다. 그러나 그 자존심은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감을 부추길 뿐이었다.

어느날 수업 후 91학번동기이자 나를 2학년 동기 중 가장 허물없이 대해 준 영석이와 얘기를 나누었다. 영석이에게 나의 최대 관심사였고, 남에게 한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그 소녀에 대해 늘어 놓았다. 듣고있던 영석이는 "아, 환동이/"라고 말하며, 왜 하필 그 애냐는 투로 말을 이어 나갔다. 그의 말에 의하면, 말을 걸면 대꾸도 없고, 파도꼬자를 비롯한 모든 과 행사에 전혀 모습을 안 비추고, 수업만 끝나면 가버린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자기 생일날 생일파티해 준다고 파대표가 꼭 남아달라고 했는데 집에 가버렸다고 했다. 별명도 "집에 매일 일찍 가서 꼼짝도 않고 있으니 얼굴이 저렇게 하얗지"라는 어떤 녀석의 말 이후 환동이가 되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며 기분이 썰로 안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이야기에 대해 이해가 갔다. 나는 어느날 그 소녀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다. 작년 1년을 재외하고라도 벌써 두달이 흘렀는데도 아는 것은 주소와 외동딸이라는 것, 광주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다는 것, 학번, 이름, 여자라는 것뿐이었다. 혹시 애가 어려운 환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도 생각해 보았다. 별에 별 상상을 다해 보던 중 내가 낙서한 연습장에서 '생일 5월15일'이라는 글자에 촛점이 맞추어 졌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그날밤을 꼬박 새워 계획을 짰다. 그것은 그날이 바로 그녀의 생일 전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6시에 학교 앞 프린스에서 만나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영석이에게 전네 주라고 했다.

지금은 6시40분, 장소는 프린스. 시간이 1분씩 지날 때마다 오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이 가슴을 압박하며 담배꽁초도 하나 하나 늘어갔다. 2시간 하고도 40분이 지났을 때 비로소 그 소녀는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늦어서 미안해요"라는 말과 어두운 그녀의 얼굴에 중압감이 밀려왔다. "저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다. 그 여학생은 난데없이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당황했지만 말을 꺼냈다. "조금은 알아요. 80년 5월18일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공수부대에게 쓰러져갔다…." 이때 그녀는 시계를 보며 다급하게 말을 가로 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9살때 광주시내에 살았는데 5월18일날 아버지가 귀가하시던 중 집앞에 있던 국민학교 올타리 밑에서 여러 여학생들을 상의를 벗긴채 구타하는 공수부대에 항의하다가 무차별 구타를 당해 그 이후에 정신분열로 수용소에 계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망울엔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의 고생으로 대학까지 들어왔는데 어머니도 병환이 드셔서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만 말하고는 그녀는 "이것이 저의 전부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만…." 그러고는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이틀 후 생각을 좀 정리하고 평온한 가정과 행복에 겨워 너무나도 무심했던 우리 동족의 슬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책을 찾아 읽었다.

농업위주였던 광주의 낙후된 산업, 불균형한 경제개발, 군부정권의 잔악성, 공수부대의 칼에 쓰러져간 시체들의 사진, 한 페이지씩 넘어갈 때마다 분노의 침이 저절로 삼켜졌다. 이렇게 그 비극을 지휘했던 장본인들이 버젓이 현 정권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잔인하고 무능한 군부정권이 어떠한 점은 손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 점은 손은 바로 우리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었다는 것을.

슬픈 역사의 희생물인 그 여학생의 모습을 보며 나는 굳은 결의를 해본다.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역사속의 일주체로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나의 사랑. 하얀 얼굴과 밝은 두 눈을 가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린 저 얼굴에 밝은 햇살이 비쳐질 그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이 현 승
〈서학·항가리어2〉

'주제글'을 모읍니다

·주 제:그대여 굳세게/
·원고마감:5월29일(금)

○… 봄날의 푸른 햇살을 뒤로 하고 수많은 젊은 넋들이 신음하고 절규하며 쓰러져 간 지 만년. 그 5월의 뜨거운 거리를 함께 내달리던 우리의 동료, 선배, 후배들의 맑은 웃음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
○…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고개숙인 채 머뭇거리고 있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이제 '그대'에게 전하러 달려 갑시다. …○
○… 아직은 봄햇살이 그립기만 할 차가운 감방에서, 또 그 어딘가에서 몸을 피해 다니면서 이 땅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열원하고 있을 우리의 동료, 선·후배와, 서러움과 그리움의 눈물로 가슴을 태우고 계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에게 이제 용기와 사랑을 전합시다. …○
○… 넘쳐나는 용기와 뜨거운 진실이 담긴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시, 수필, 일기문, 편지글, 콩트(각 7~10매)등 어떠한 형식의 글이라도 좋습니다. …○
〈문화부〉

파수대

사진(?)속의 노동자

지난 17일(일) 원진레이온 정문앞에서는 산업재해 추방결의대회가 열렸고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병 피해를 호소했다.

〈박준모 기자〉

우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92 통일노래한마당 에 참가합시다

우리 삶이 존재하는 곳에 언제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때론 힘겨운 우리의 어깨 위에 용기와 진실의 나래를 고이접으며 날아들고, 때론 기쁨의 함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조국의 현실과 함께 하는 청년학생들의 삶의 노래를 찾습니다. 6월4일(목)우리 진실의 노래를 모아 젊은 대학인의 삶을 이야기합시다. 노래를 사랑하는 외대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마감:5월 24일 (일)
신청장소:총학생회 문화국
참가자격:외대인 누구나(개인·단체)
참가곡 주제:청년학생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갖가지 이야기들

제26대 승리하는 총학생회 문화국

제13회 FBS 외대가요제

일시:예선:1992년 5월 23일(토)오후1시
본선:1992년 6월 2일(화)오후6시
장소:예선:본교대학원 6104
지참물:원서및 악보 2매
본선:본교 노천극장
주최:FBS외대 교육방송국
시상내역:외대인상, 심사위원상, 노랫말상 /각 15만원

※자세한 문의는 외대방송국 전화 961—4154로 연락바랍니다

알찬방송, 빠른보도 외대교육 방송국FBS